월간 북한 동향

Monthly Report on North Korea

2026년 5월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과 언어표현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가. 언어표현 및 어문 규정 적용

o 북한 동향 주요 내용: <u>북한 원문 그대로 적용</u>

※ 예외 경우

① 북한인물 직책 표기 시, 직책이 여러 개일 경우 대표직책만 표기

② 국내 인사 실명 비난 시, 이름의 성(姓)만 공개 ex) 홍길동 → '홍OO'

③ 특정 행사 관련 내용은 △일시 및 장소 △참석자(주석단, 동행, 맞이 등) 별도 정리

o 남북한 표현 차이 및 띄어쓰기 관련

① 생소한 북한 단어는 '괄호'로 설명
ex) 짜고들어(계획하여), 전구(본보기가 될 행동이나 사실, 앞장서는 사람)

② 북한식 표현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 처리

③ 북한 고유명사를 제외한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고려해서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④ 월간 보도일지·주요 인물 동정은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나. 주요 인물 동정

o 당 부장급 이상, 내각 상급 이상 등 그 정도 수준의 주요 인물로 한정

2. 본 자료의 내용들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원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각 자료들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o 월간 보도일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보도일'을 기준으로 작성

※ 월간 북한동향에서 인용하는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약어로 표기

- 신문, TV, 라디오 : 노동신문 → '노동', 조선중앙통신 → '중통', 조선중앙TV → '조중TV', 중앙방송 → '중방'

o 동일한 내용을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경우, 보도순서에 따라 출처 표기

3. 본 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현 및 시기에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북한 동향

전력공업부문 신규 발전소 준공 및 건설 추진 현황 ·· 5
화학공업부문 공정 개선, 설비 개건 등 성과 선전 ·· 6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동향 ····· 7
5.1절(국제노동절) 관련 동향 ····· 9
외무성 대변인, 북한 사이버 위협 관련 국제사회 대응 비난 ····· 10
제24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막 ····· 11
공업생산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 ····· 12
청년·고급중학교 졸업생의 탄원 선전 ····· 14
무산-청진 간 철정광 수송관 증설 준비사업 ····· 16
김성 유엔 대사, 「제11차 NPT 평가회의」 비난 담화 ·· 17
건설 분야 8기 성과 선전 ····· 18
간석지 내부망 건설 현황 ····· 19
김정은 위원장, 중요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 ····· 20
김정은 위원장, 구축함 《최현》호 기동능력 종합평가 시험 참관 ····· 21
러시아 전승절 계기 김정은 축전 및 북한군 열병식 참가 ····· 22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 본격 실행 독려 ·· 23
국가관광총국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 진행 ····· 24
모내기 시작 ····· 25
지방발전정책 실행을 과학기술로 견인 성과 선전 ·· 26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 대회 동향 ····· 27
건설 부문, 8기 성과 연재 ····· 29
김정은 위원장, 여러 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 ···· 31
베트남 주석 특사 레 호아이 쭝 외무상 방북 동향 ·· 32
교육부문 혁신 성과 선전 ····· 33
영국의 송도원야영소 제재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문답 ····· 34
흥남비료연합기업소 5월 비료 초과생산 ····· 35
김정은 위원장, 전군 사단·여단 지휘관 회합 소집 ·· 36

국제경기대회 참가 동향 ····· 37
9기 1차 과업 관철을 위한 농촌살림집 건설 독려 ·· 39
지방공업공장 정상화를 위한 수천 정보의 원료림 조성 선전 ····· 40
단천발전소 1단계 준공식 진행 ····· 41
미국의 대남 무기 판매 관련 중통 논평 ····· 42
무산광산연합기업소 120만산 대발파 ····· 43
조선소년단 창립 80주년 계기 충성의 편지이어달리기 출발모임 ····· 44
자연재해방지 대책 준비 ····· 45
당 중앙위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6월 하순 소집 결정 ·· 46
김정은 위원장, 중국 산시성 탄광가스폭발사고 관련 위문전문 전달 ····· 47
새로운 조선식문명창조 강조 ····· 48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제26차 전체대회 진행 ····· 49
경공업 제품 질제고를 위한 규격화·현대화 지속 강조 ·· 51
평양시 인민생활향상지원체계 《호주》 선전 ····· 52
김정은 위원장, 국방과학연구기관 중요무기시험 참관 ·· 53
싱가포르 외무상 방북 동향 ····· 55
쿼드(QUAD) 외교장관성명 관련 외무성 대변인 문답 ·· 56
당 결정 관철을 위한 채취·전력 부문 독려 ····· 57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5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 58
故 마체고라 전 주북 러시아 대사 기념판 제막식 진행 · 59
북한 국가정보국대표단, 러시아 제1차 국제안전연단 참가 ····· 60

주요인물 동정 ····· 61

월간 보도일지 ····· 70

이달의 약사 ····· 76

전력공업부문 신규 발전소 준공 및 건설 추진 현황

1 개 요

o 북한은 전력공업부문에서 신규 태양빛발전소 준공 및 이천2호군민발전소·회양2호군민발전소 본격 건설을 추진(5.1. 노동·중통, 5.2. 노동)

o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신규 태양빛발전소 준공

- 기본적인 전력생산시설을 비롯하여 휴게실 등 "종업원들의 사업·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동력기지로 선전
-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 언급하며 태양빛발전소 건설 등 "자연에네르기" 발전능력 조성 지속 강조

* "나라의 유리한 지역들에 자연에네르기 발전능력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에네르기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3.24. 중통,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o 이천2호군민발전소·회양2호군민발전소 발전기실 기초굴착작업 진행 등 관련 공사 본격 추진

- 발전소 공사를 위해 구체적인 "연차별계획", "단계별목표", "일꾼별 임무분담" 수립 완료 및 계획에 따라 공사 추진 위한 총화사업 강화
- (이천2호군민발전소) 언제(댐)기초정리 굴착작업 완료(4.8.) 및 발전기실 기초굴착작업 86%단계에서 추진 중
- (회양2호군민발전소) 언제 기초굴착, 발전기실 기초굴착, 물길뚫기 동시 추진 중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 노동·중통, 5.2. 노동)

o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을 위한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태양빛발전소를 건설", "전력생산과 종업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진 동력기지"(5.1. 노동·중통)

–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도에서는 강력한 건설역량을 편성하고 자재보장을 선행"

o "이천2호군민발전소와 회양2호군민발전소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 "연차별 계획과 단계별 목표가 명백하게 세워지고 일꾼별 임무분담이 구체화"(5.2. 노동)

– "이천2호군민발전소건설장, 지난 4월 8일까지 언제(댐)기초정리굴착작업을 끝낸 건설자들, 기초콘크리트치기를 다그치고 있어", "발전기실기초굴착작업은 86%단계에서 추진"

– "회양2호군민발전소, 언제기초굴착과 발전기실기초굴착, 물길굴뚫기를 입체적으로 동시에 내밀어야 하는 등 공사과제가 방대하지만 이들은 한순간의 동요나 주춤도 없이 완강하게 분투"

화학공업부문 공정 개선, 설비 개건 등 성과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설비 개건, 기술 개선 등 생산 활동 성과 선전(5.1. 노동, 5.3. 노동)

o 흥남비료 △인공지능 기반 지능화 경보체계 도입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위한 새 배전소 건설* △재처리직장 공정 개건 사업** 등 진행 중

* 기존의 노후화된 2개의 배전소는 철거 작업 진행 중

** 환경오염 방지 및 무연탄 소비 절감 목적("개방형 비료생산공정, 원료처리시 무연탄가루 날려")

o 최근 흥남에서 준공한 △멜라민수지 생산공정 △지효성과립요소비료 생산기지 △촉매생산기지 등 화학공업기지들의 생산 정상화 사업도 보도

*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지난 1.26. 촉매생산기지 및 지효성과립요소생산공정 준공, 작년 6월에는 멜라민수지생산공정을 준공('25.6.10. 노동·중통)

o 남흥청년화학, 4월까지 계획보다 수천 톤의 비료 증산, 봉탄의 질 제고 및 가스 생산량 장성 등의 성과 보도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지난 1.21. 암모니아합성 촉매생산기지 준공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 노동, 5.3. 노동)

o (흥남비료) "4월초부터 가스발생공정에 대한 집중적인 공정검토가 전개"(5.3. 노동)

- "시간당 가스생산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해 중요기술지표들을 하나하나 검토", "발생로직장 노동자들, 무연탄소비를 더욱 낮출 수 있는 예비 찾아"
-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설비가 오동작할 수 없게 미리 방지하는 지능화된 경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구상도 진행 중"
- "지능화된 최신기술이 도입된 새 배전소 건설", "두개의 낡은 배전소를 허물어버리고 현대적인 새 배전소를 일떠세우는 중"
- "재처리직장의 공정개건을 위한 기술준비도 본격적으로 추진", "환경오염을 막고 무연탄소비를 낮추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전구"

o "멜라민직장, 시작품생산과정에 일부 난문제들이 제기", "운전조작방법을 탐구, 공정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착상안들 나와"

- "몇 달 전 준공한 지효성과립요소비료생산기지, 새 기술 터득하며 성장중", "시작품 생산은 곧 정상화로 이행", "새로 꾸려진 촉매생산기지, 벌써 7가지의 질소비료용촉매를 개발, 공업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중"

o (남흥청년)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계획보다 수천t의 비료를 증산"(5.1. 노동)

- "미분탄류동구의 여닫이변을 새롭게 착상하고 건조공정을 개조함으로써 봉탄의 질제고에 이바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4.28.-30.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5.1. 노동·중통)

* 참석 : 김재룡·리일환·주창일(당비서), 김성기(군총정치국장), 청년동맹 일군들 등

- (의정) ① 청년동맹 중앙위 사업총화 ② 규약개정 ③ 중앙지도기관 선거
- (진행) 국가 주악 → 집행부·서기부 선거 → 당 중앙위 축하문 전달(김재룡) → 의정① 보고(문철 위원장)·토론(서면포함 20명) → 의정② 토의·채택 → 의정③ 토의 → 중앙위원회/지도기관 선거 → 대회 결정서 가결 → 맹세문 채택

o 김정은 위원장은 대회에 불참하였으나 5.2. 참석자들과 기념촬영(5.3. 노동·중통)

* 김 위원장, 청년동맹 제9차대회('16.8.) 참석, 제10차대회('21.4.) 서한송부 및 기념촬영 / 창립80년('26.1.16.) 참석

o 부대행사로 △4.30. 횃불야회 △5.1. 강습, 청년중앙예술선전대 등 종합공연 △5.2. 화성지구 5단계 건설 노력지원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참관(5.4. 보도) 등

o 제9차 당대회('26.2.) 후속조치 차원으로 '21년 이후 5년 만에 개최

- 선대 언급 없이 '김정은 영도'를 부각하며 청년의 사상·조직적 결속에 주안(대외 메시지 無), 당대회 결정과업을 수행할 실질적인 동력으로 청년층 활용 시사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3. 노동·중통)

o "청년동맹 제11차 대회가 4.28.~30.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5.1. 노동·중통)

- "청년동맹을 당의 충직한 전위대, 애국청년들의 조직체로 정예화하는데 중요한 공정"
- "보고자는 청년들이 혁명의 전위투사들로 성장한데 대하여", "동맹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아버지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에 대하여 언급"
- "보고자는 조국·혁명·인민보위의 전초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마다 피와 목숨, 땀으로 공적을 쌓은 청년군인들의 영웅적 위훈에 대하여 강조"
- "해외군사작전 참전 청년군인들은 진정한 애국주의란 무엇이고 어떤 삶이 조선청년들답게 사는 것인가를 온 세계에 새겨준 위대한 애국청년의 전형"

- “성과와 경험 공고히, 결점과 편향은 철저 극복해야 끊임없이 장성발전”, “총결기간 결함, 원인, 극복방도 분석총화”, “당이 제시한 청년동맹의 3대 기본임무를 일관되게 내세우고 동맹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해야”

o (당중앙위 축하문) “제11차 대회 참가자들과 전국의 청년들에게”(5.1. 노동·중통)

- “이번 대회 통해 당 제9차 대회 결정집행에 지향시킨 새로운 투쟁과 전진의 리정표를 세우게 됨”
- “지난 5년 청년동맹의 역사에 전례없는 전성기가 펼쳐진 보람차고 영광넘친 연대”, “모든 부문, 지역, 단위에서 청년동맹조직·동맹원들이 활약·성과”
- “특히 해외군사작전에 참가한 청년군인들은 한몸이 그대로 작렬하는 폭탄이 되어 조국의 명예를 사수”, “공화국에 대한 주권침해행위와 전쟁도발소동에는 백수십만 명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
- “현시기 청년동맹의 기본과업은 청년들의 앙양된 혁명적 기세와 애국적 열의를 고조시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선봉에서 맹활약하도록 하여, 금후 5년을 조선청년운동의 보다 강력한 활성기로 만드는 것”
- “동맹조직들에서 새것에 민감한 청년들속에 부패타락하고 변태적인 생활풍조가 유행의 탈을 쓰고 침습하지 못하게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차단”

o “김정은 위원장, 제11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5.3. 노동·중통)

- “세계 그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청년들의 고결한 풍모와 강철의 전투력이야말로 우리 국력의 자부스러운 상징”
- “방대한 투쟁과업이 나서고 있는 현실은 청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진출과 용기충천한 역할을 요구”
- “모든 청년들을 당의 이상실현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청년애국자로 교양육성하는데 동맹사업의 천사만사를 지향시켜야 나가야”

5.1절(국제노동절) 관련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5.1절 136주년 기념 중앙보고회를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5.2. 노동·중통)

* 참석 : 박태성(내각총리), 리일환·안금철(당 비서) 등

** 식순 : 개회 선언 → 국가 주악 → 보고(박태성 내각총리) → 인터나쇼날***(인터내셔널) 연주

*** 사회주의자와 노동자들이 부르는 혁명가, 국제 사회주의 운동의 상징

- 북한은 1950년 5.1절을 공휴일로 지정, 199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3)를 제외하고 매년 중앙보고회 개최
- 보고를 통해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과업을 무조건 완수할 것"을 주문

o 5.1절 계기 근로자 축하·격려,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진행

- △당·정 간부들 공장 및 기업소 방문·격려 △금수산태양궁전, 모자이크 벽화에 꽃바구니 진정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참관 △체육 및 유희 오락 경기 △만수대예술단 공연 등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2. 노동·중통)

o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136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 과업부터 무조건 완수"
-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념을 절대불변의 지침으로 삼고 근로인민대중의 권익을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다할 것"

o "당과 정부의 간부들, 근로자들과 함께 5.1절을 뜻깊게 기념"

-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완수할 일터마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열풍을 일으켜 나가는 혁신자들을 만나 격려"

o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시대에 더욱 넘쳐나는 애국적근로자들의 희열과 랑만"

-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선 군중들, 동상과 모자이크 벽화를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 진정"
-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찾은 근로자들, 참전열사 사진, 유물, 위훈자료들을 돌아보면서"
-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국립교향악단음악회,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등 진행"
-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을 비롯한 문화휴식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흥성임"

외무성 대변인, 북한 사이버 위협 관련 국제사회 대응 비난

1 개 요

o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 관련 중통기자와 문답(5.3. 중통)

- 대미 이슈 관련 올해 첫 외무성 차원 반응

* '25.11.6. 김은철 외무성 부상의 '미국 재무부 독자제재 발표 관련 비난 담화' 이후 6개월만

o △미국 적대시정책 비난 △국제 평판 훼손 대응 △공민 권익보호 주장

- 사이버위협 대응을 '허위정보',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폄훼, 주권침해 간주 비난
- 미국 정부 입장 외 언론 보도 등도 거론, 북한 사이버활동 쟁점화 견제

o 최근 북한은 핵문제 등 직접적인 북미관계 이슈보다는 주요 계기별로 담화 수위를 조절하며 △인권 △대북제재 등 소위 '적대정책'에 대한 반박 지속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3. 중통)

o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무근거한 우리의 《사이버위협》에 대해 여론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질문에 대답"

- "미국은 정부기관, 어용언론기관,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국제사회에 그릇된 대조선인식 확산 시도"
- "미국이 그 누구의 《사이버위협》에 대해 여론화하고 있는 것은 역대적으로 답습해 온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연장"
- "사이버 문제를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그 어떤 불순한 기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대배격하는 것은 일관한 정책적 입장"
- "적대세력들의 대결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수호와 공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

제24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막

1 개 요

o 북한은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4. 제24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5.5. 노동·중통)

* △개최 기간 : 5.4.-8.(5일간) △장소 : 평양 청년중앙회관, 옥류전시관

** 개막식 : △5.4., 청년중앙회관 △참가 : 윤정호(대외경제상), 왕야쥔(주북 중국대사) 등 각국 대표단 및 북한 주재 외교성원들, 관계·출품단위 일꾼들

- 러시아·중국·몽골·스위스·태국 등 참가, 지난해 대비 참가 기업(110 → 290여개) 및 제품 분야 확대(금속·기계·농업·수산 등)

o 평양 국제상품전람회는 매년 봄철(5월)과 가을철(9~11월) 연 2회 개최, 올해 봄철 박람회는 팬데믹 종식 후 두 번째

* 제15차 가을철 전람회('19년 9월) 개최 후 코로나로 4년간('20~'23년) 미개최, '24년 제16차 가을철 전람회('24년 11월)부터 재개되었으며 봄철 대회는 작년 5월 제23차 전람회부터 재개

o 북한이 제9차 당대회에서 대외무역의 활발한 전개를 강조한 만큼 향후 △제품 해외판로 모색 △투자 유치 △기술 협력 등을 목표로 전람회 규모 확대 추진 전망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5. 노동·중통, 5.5. 조중TV)

o "제24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 "러시아, 중국, 몽골, 스위스, 타이의 290여개 기업체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우수한 제품들 출품"(5.5. 노동·중통)

- "전자, 기계 건재, 농업, 보건, 수산, 경공업, 식료일용 등의 1,700여 종에 수만 점에 달하는 제품들이 청년중앙회관과 옥류전시관 구획에 나뉘여 전시"
- "전람회기간 경제교류와 협조를 위한 기업소개 및 제품설명회"

o "개막식이 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 "윤정호 동지가 개막사"

- "전람회는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다방면적인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제적인 경제회합"
-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대외경제관계를 강화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협조를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일관한 대외경제정책"
-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갈 것"

o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제무역 및 과학연구 기관들과의 접촉과 교류가 진행"(5.5. 조중TV)

공업생산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

1 개 요

o 북한은 제9차 당대회 이후 각 산업부문별 생산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량을 선전(5.5. 노동)

- △(건재)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 시멘트 1만5000톤 증산 △(석탄)2.8직동청년탄광에서 계획보다 석탄 2500톤 증산 등 구체적 수치* 언급

  * △(화학)"남흥청년연합기업소, 두달동안 계획보다 7500톤의 비료를 증산" △(임업)"4월 한달동안 1100m^{3}의 통나무를 증산" 등

- 산업부문 별 기술혁신안, 과학적 관리방법 등 도입을 통한 생산실적 성과 선전

  * △(금속)"무산광산, 박토를 다량처리할 수 있는 기술혁신안 받아들여 철정광생산 활성화" △(전력)"수력발전소, 과학적 물관리방법으로 전력생산 늘려" △(기계)"대안중기계, 정밀도를 기술적요구대로 보장" △(채취)"광물 및 유색금속 생산에서 혁신"

- 경공업·수송·수산 부문에서도 3·4월 생산계획 초과완수 및 질제고(경공업)·양식면적 확대(수산) 등 선전 보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5. 노동)

o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단위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을 위한 대중적 혁신운동이 힘있게 전개되는 속에 공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7%로 장성"

- (건재)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3월 일평균 107%의 증산실적을 냈으며 4월에도 생산계획을 드팀없이 수행",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1만 5000여t의 시멘트를 증산", "대안친선유리공장, 일평균 107% 이상의 판유리생산실적"
- (석탄) "천성청년탄광,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수천 t의 석탄을 증산", "4월에 들어와 계획보다 2500여 t의 석탄을 증산한 2.8직동청년탄광", "풍곡청년탄광, 일평균 141%의 생산실적 기록"
- (금속) "4월 압연강재 생산계획을 109%로 수행",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박토를 다량처리할 수 있는 기술혁신안들 받아들여, 철정광생산을 활성화", "은률광산, 재령광산, 생산실적을 끌어올리어"
- (화학)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두달동안 계획보다 7500여 t의 비료를 증산",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모든 공정들의 정상운영을 보장하여 생산성을 높여",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온실남새생산에 필요한 영양액비료생산량 늘여"

- (전력)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4월계획을 완수”, “평양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 “각지 수력발전소, 과학적 물관리방법으로 전력생산을 늘여”
- (기계)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정밀도를 기술적 요구대로 보장하면서 전동기, 변압기생산계획을 수행”, “평양326전선종합공장, 계획보다 많은 케이블 생산”, “안주펌프공장, 평양베어링공장, 양책베어링공장 등에서도, 생산을 장성”
- (채취) “물질기술적토대강화를 기본으로, 광물 및 유색금속생산에서 혁신”,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착암기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발한 착상밑에 설비들의 정상운영을 보장”, “려원광산, 시간당생산량 끌어올려”, “풍년광산, 오일광산, 시중광산, 인평청년광산, 광물생산과제를 드팀없이 수행”
- (임업) “3월과 4월 통나무생산계획을 각각 106%, 102%로 넘쳐 수행”, “4월 한달동안 1100여m^3의 통나무를 증산”
- (수송) “평양철도국, 두달동안 계획보다 수천 t의 물동을 더 실어날라”, “함흥철도국, 운전조작법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매일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 “개천철도국, 청진철도국, 물동수송에서 진전”
- (경공업) “방직공업부문에서 다기대, 다추운동 전개, 4월 천생산계획을 완수”, “류원신발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양말공장 등, 기술개건과 질제고에 관심, 인민들이 선호하고 즐겨찾는 제품생산에서 진전”
- (수산) “3월 수산물계획을 109% 이상으로 넘쳐 수행”, “평안남도수산관리국, 평안북도수산관리국, 기상조건과 어황조건에 능동적 대처, 적극적인 어로활동을 벌려 성과”, “구미포수산사업소 등, 양식면적을 종전보다 늘려”

청년·고급중학교 졸업생의 탄원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인민의 적극적인 탄원* 진출을 사상·정신적 성장 및 애국정신과 연결 지으며 제9차 당대회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청년·졸업생 탄원 사례를 선전(5.5. 노동)

*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할 것을 스스로 청원하는 것

- "지방발전 20×10 정책"과 같은 당 정책과 탄부들에게 보인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함남·평남 등의 지역에서 청년들의 탄원 열의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
- 교복·책가방·학습장·학용품 제공 등 "학생 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을 언급하며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의 "최전연국경초소 집단탄원"도 강조

* 특히, 염주군 하석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이 최전연국경초소로 탄원한 계기로 "무인기를 침입시킨 적들의 도발행위" 지적

o 이어서 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이후 청년 탄원자 축하모임을 보도(5.7.-8. 중통, 5.9. 노동)

- 평양시(5.7.), 평안북도(5.6.) 탄원자 축하모임 진행 등 '탄원기풍' 조성 도모

o 제9차 당대회 첫해 청년들의 애국심 고취 및 탄원 진출 강조,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에서 청년의 역할 독려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5. 노동, 5.7.-8. 중통, 5.9. 노동)

o "나날이 확고해지는 당정책에 대한 억센 신념의 분출"(5.5. 노동)

- "당정책이 깃들지 않은 곳, 사람들이 덕을 보지 않는 지역이나 고장이 있던가."
- "바다가양식사업소에 탄원한 락원군청년들", "락원군의 새세대 주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그 덕을 누리기만 하겠는가."
- "김정은 위원장, 탄광마을을 개변하기 위한 사업 특별히 강조", "평안남도안의 많은 청년들의 마음은 탄전으로 달리고 있음."

o "달리 될수 없는 생활의 필연"(5.5. 노동)

- "염주군 하석고급중학교 고급 3학년 2반 졸업생, 최전연국경초소로 달려나갈 결심", "우리 공화국의 령공에 무인기를 침입시킨 적들의 도발행위에 격분"
- "교복, 《소나무》 책가방, 《민들레》 학습장, 《해바라기》 학용품 안겨주어"
-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대오의 기세는 날로 충천"

o “평양시, 평안북도의 청년들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로 탄원”(5.7.-8. 중통, 5.9. 노동)

- “청년들의 열혈의 투쟁기세와 혁명적 열정이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를 계기로 비상히 승화”, “평양시·평안북도의 수십명 청년, 주요전구들로 탄원”
- “평양시 탄원자들을 축하하는 모임, 7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 참가, 탄원증서가 수여되고 축하발언과 결의토론”
- “평안북도 탄원자들을 축하하는 모임, 6일에 진행”,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양명철 동지,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청년 참가”

무산-청진 간 철정광 수송관 증설 준비사업

1 개 요

o 북한은 "무산-청진 간 철정광 수송관 증설 준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5.6. 노동)

* 무산에서 청진까지 이어지는 수송관은 1970년대 건설된 것으로, 무산광산에서 생산된 철광석 정광을 100km 떨어져 있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까지 운반

** 정광을 분말 상태의 철광석과 물이 섞인 슬러리(slurry) 상태로 수송관을 통해 김책제철로 수송 → 김책제철에서는 이를 탈수건조하여 사용

- 금속공업성에서는 △추진계획 검토 △자재수요 확정 △기술과제서 작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김책제철에서는 200여리 구간에 대한 측량작업을 결속했다고 보도

o 철광석 수송은 수송관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침전물이 쌓이는 등 수송관 노후화에 따라 보수 필요성 제기, '23년 10월 일부 구간에서는 교체공사 진행

* '23년 10월 무산-청진간 장거리 수송관의 1만여m 구간의 교체공사 결속('23.10.31. 노동)

o 동 사업은 사업의 규모, 경제적 효과 등으로 미루어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 금속공업 부문의 주요 과업으로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6. 노동)

o "무산-청진 사이 철정광수송관 한계통증설을 위한 준비사업 본격적", "새 전망계획기간에 진행"

- "공사가 완공되면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철강재생산단위들에 필요한 원료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튼튼히 구축"

o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김책제철연합기업소까지 수백리 구간에 관로를 늘이고 규모가 큰 펌프장들과 수리기지 등을 일떠세워야 하는 방대한 공사"

- "금속공업성에서는 추진정형을 정상적으로 요해 중",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연관단위와의 협동을 강화"
- "김책제철, 금속공업성을 비롯한 해당 단위와의 연계 밑에 대상별에 따르는 자재소요량등을 확정하고 기술과제서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사업 진행"

o "김책제철 송평관수송사업소, 국가과학원 3화수송연구소의 연구사들과 함께 현지측량사업 적극 내밀고 있어"

- "200여리 구간에 대한 측량작업을 기본적으로 결속", "정광수송관이 지나가야 할 지역들에서 토지유실 방지 위한 실무 대책 세우는 중"
- "금속공업성 강철설계연구소, 펌프장과 탈수장, 용수장들의 설계방안 확정중"

김성 유엔 대사, 「제11차 NPT 평가회의」 비난 담화

1 개 요

o 김성 유엔 대사는 5.6. 제11차 NPT(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관련 비난 담화를 발표(5.7. 중통)

*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26.4.27.-5.22. 개최, NPT 회원국은 통상 5년마다 NPT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조약 이행상황을 점검

o 북한 핵보유 정당성을 강조하며 미국 이중기준을 비난, 헌법상 핵보유국 지위 강조

- 합법적 NPT 탈퇴 주장, 미국의 국제조약·협약 탈퇴 언급하며 이중기준 비난
- '확장억제', '핵잠수함' 협력 등을 조약 위반으로 거론하며 우리측 간접 언급
- NPT 조약 불구속 및 핵보유국 지위 명기한 북한 헌법 권위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7. 중통)

o "(NPT) 제10조에 따른 조약탈퇴 권리를 투명성 있게 행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조약 의무이행을 강요하는 미국, 서방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 국제법의 목적, 원칙에 대한 전면 무시"

– "미국은 자기가 탈퇴한 각종 국제조약과 국제기구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에도 꼭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부터 답해야 할 것"

o "핵무기전파방지조약 당사국으로서의 핵군축의무를 태공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 이전 같은 행위를 일삼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이행의 중심으로, 상기 검토대회 사업의 기본안건으로 되어야"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음."

– "핵무력 사명과 핵사용 원칙, 전파방지의무를 가장 투명성있게 천명한 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헌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충실하는 것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것"

건설 분야 8기 성과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새로운 건설혁명(1)' 보도로 8기 동안의 건설 성과를 선전(5.7. 노동)

* 올해 건설 보도는 3번째로, 연초 '천지개벽을 안아온 건설의 대번영기(1)·(2)(1.19., 24. 노동) 게재

- "평양시 5만세대", "평양종합병원", "지방 문명화", "원산갈마·삼지연 관광지구" 등

o '탁월한 사상·방략', '건축 발전의 지침' 등 그간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 성과 과시

- 김정은 위원장, "국가의 전면적 부흥과 인민의 복리증진은 건설 시작·수행·성과들로 성취", "앞으로 20~30년 기한부로 새로운 건설 혁명('21년 12월 전원회의)" 언급
- 김정은 위원장, '22년 2월 제2차 건설부문 일군대강습 참가자 대상,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문명 발전을 선도해나가자' 서한 발송, 건설 과업·지침* 제시

* △(과업) 평양시 5만세대, 산악협곡도시, 광산도시, 현대적 교육·보건 시설, 휴양지 관광지 등 △(지침) "다기능화·다용도화·실용화 구현", "속도보다 질, 질 제고가 생명", "시공 역량 준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7. 노동)

o "새로운 건설혁명의 연대기", "지난 5년간의 사변적 성과들 중에서 새로운 건설 혁명의 불길 속에 일어난 경이적인 전변"

-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 평양종합병원건설과 같은 웅대한 건설구상들이 성과적으로 실현", "지방 건설, 지방 문명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관광지구 등 새 생활, 새 복리의 실체들"

o "건설의 기적을 안아온 탁월한 사상과 방략들"

-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역사적 위업은 건설로 시작되고 건설과 함께 수행되며 건설의 성과들로 성취된다고 할 수가 있어"
-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앞으로 20~30년을 기한부로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개변시키기 위한 새로운 건설 혁명은 당 중앙의 의도라고 천명"
- "제2차 건설 부문 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서한《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해나가자》"
- "세계 건축발전 추세에 맞게 명확한 목표와 방향, 불멸의 지침들을 제시"

간석지 내부망 건설 현황

1 개 요

o 북한은 "각지 간석지내부망건설자, 토지정리돌격대, 평북여단 돌격대" 등 내부망공사 진행 보도(5.7. 노동)

o "서해의 여러 간석지가 농업토지로 전변"되었다며 간석지 사업 성과 보도

- "애도간석지 1구역 내부망공사 진입", "불과 한달 남짓 기간 백수십정보 간석지 규격포전으로 전환"
- "돌격대원들 힘찬 투쟁 끝에 500여 정보의 간석지가 규격포전으로 전변"

o 김정은 위원장은 '23년 12월 제5차 어머니대회에서 "간석지건설 7~8년 내 완료"를 언급하였는바,

- 향후 간석지 건설 통한 농업토지 확대 등 지속 강조 전망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7. 노동)

o "각지 간석지내부망건설자들과 토지정리돌격대 평안북도려단 돌격대원들은 올해 이미 개간된 간석지의 내부망공사를 다그쳐 수천정보를 규격포전으로 전변시킬 목표밑에 그 실현을 위한 투쟁 중"

o "바닷물이 드나들던 서해의 여러 간석지가 하루가 다르게 농업토지로 전변"

- "염주, 곽산, 증산, 평원간석지내부망건설사업소에서 애도간석지 1구역 내부망공사 진입", "한달 남짓 기간 백수십 정보 간석지 규격포전 전환"
- "대동만간석지 3구역, 비파간석지내부망공사장에서도 위훈창조의 불길"
- "당중앙위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간석지내부망건설자들과 토지정리돌격대 평안북도려안 돌격대원들의 투쟁에 의해 벌써 500여 정보 간석지가 규격포전으로 전변", "공사성과 계속 확대 중"

김정은 위원장, 중요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5.6.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하여 155mm 신형 자주포 등 생산실태를 점검(5.8. 노동·중통)

* 동행 : 조춘룡(당비서), 김정식(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박정천(국방성 고문), 김강일(국방성 부상 겸 장비총국장), 유창선(총참모부 포병국장), 김명선(국방성 병기심사국장), 김용환(국방과학원장)

- "올해 중 남북국경 포병부대 장비", "60km 사정권" 등 자주포의 군사전략적 가치 언급
- 군수기업소 자동화, 최첨단화도 주문하며 9기 2차 당 전원회의에서 '군수공장 현대화 계획' 심의·비준 예고

o 이번 행보는 제9차 당대회 기조 하에서 군수산업 현대화, 대남 방위태세 강화 목적으로 평가

* 제9차 당대회, "남부국경선 요새화, 경계체계와 화력체계 보강", "(한국지역 억제 위한) 600·240mm 방사포, 작전전술미사일 연차별 증강 배치"('26.2.26.)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8. 노동·중통)

o "김정은 위원장은 5월 6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하고 상반년도 주요무기 전투기술기재 생산실태를 요해"

- "올해 중에 남부국경 장거리 포병부대에 장비시키게 되여있는 3개 대대분의 신형 자행평곡사포 생산"

o "작전전술 미사일과 방사포 무기들과 함께 전방부대들에 교체 장비시키게 되는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를 넘게 됨."

- "이러한 화력타격범위의 급속한 확대와 표적격파 능력의 비약적인 향상은 우리 군대의 지상작전에 커다란 변화와 유리성을 제공하게 될 것"

o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을 최단기간내에 최첨단 수준으로 기술개건하고 현대적인 생산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초미의 문제"

-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가 해당 군수공업기업소들의 기술개건 계획사업들과 관련예산을 심의하고 비준하게 될 것"

김정은 위원장, 구축함 최현호 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 참관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5.7.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 함 '기동능력평가' 참관(5.8. 노동·중통)

* 동행 : 김정은 위원장 딸, 조춘룡(당비서), 김정식(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박광섭(해군사령관), 박정천(국방성 고문), 김강일(국방성 부상 겸 장비총국장), 김용환(국방과학원장) 등

- "조선 서해상 120n·mile(120해리, 220km) 구간에서 함 기동요소 평가"
- 3·4월 '작전수행능력' 및 무장체계 시험에 이어 '실전 해상 기동' 점검 차원

* 김 위원장 △3.3.-4. 최현호 작전수행능력 평가 △3.10.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4.12. 무기체계 시험에 이어 한 달 만에 재방문

o "6월 중순 해군 인도 명령" 등 조만간 최현호 전력화 예고

- 김 위원장은 '해군기지 신설', '3·4호함 설계 및 무장 변경' 등 과업도 제시

o 이번 행보는 제9차 당대회 기조 하에서 해군력 강화 차원 평가

* 제9차 당대회, "해군 핵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작전능력을 급속히 갱신"('26.2.26.)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8. 노동·중통)

o "김정은 위원장은 5월 7일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하고 취역을 앞두고 진행하는 함의 기동능력 종합평가시험을 참관"

- "조선서해상 120n·mile 구간에서 항해시험이 진행"

o "김정은 위원장은 구축함의 작전취역을 위한 모든 시험들이 순조롭게 진척되고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고 계획대로 오는 6월 중순 해군에 인도 명령"

- "해군기지 신설과 관련한 중요과업에 대하여서도 강조"
- "새로 건조하는 3호함, 4호함의 설계변경 문제와 새롭게 계획한 함상무장체계구성문제를 심의한 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요결론", "수정변경된 함선건조계획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결정은 중대한 전략적 성격"

o "김정은 위원장은 반드시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면서 해군건설 구상과 계획사업에 대하여 피력"

러시아 전승절 계기 김정은 축전 및 북한군 열병식 참가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5.9. 러시아 전승절 81주년을 기념해 푸틴에 축전 발송(5.9. 중통)

- 전승절 축하 및 북러 신조약 의무 이행에 책임적인 입장 확인

o 북한군, 5.9. 러시아 전승절 81주년 기념 열병식에 최초로 참가(5.10. 노동·중통)

- 러시아 초청으로 조선인민군 육해공군혼성종대 행진
- 푸틴 대통령, 열병식 후 최영훈 육군대좌 지휘관에 사의 표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9.-10. 노동·중통)

o 김정은 위원장, “무비의 용감성과 고결한 애국주의 정신으로 파시즘을 격멸하고 인류의 자유와 해방,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 전세대 노병들에 경의”(5.9. 중통)

- “오늘날 북러관계를 함께 인도하며 양국 인민의 공동의 이상과 염원대로 자주와 존엄, 평화와 번영의 빛나는 새 전기를 써나가고 있는데 만족, 긍지”
-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동맹적 성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대로 중시, 승화발전시켜 나가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o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81돐 열병식 진행, 조선인민군 육해공군혼성종대가 열병식에 참가, 최영훈 육군대좌가 지휘”(5.10. 노동·중통)

- 푸틴 대통령, “전승세대의 위대한 공훈은 오늘날 특수군사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을 고무하고 있음.”
- “쿠르스크를 해방하기 위한 전투들에서 불멸의 위훈을 떨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의 종대가 붉은광장을 행진”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 본격 실행 독려

1 개 요

o 북한은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전체 인민이 새로운 지방발전정책과 농촌혁명강령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독려(5.10. 노동)

* "올해부터 매해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병원·종합봉사소 건설", "양곡관리소와 지방종이공장 건설", "농촌의 도시화·문명화·선진화 실현을 위해 모든 일꾼, 당원, 근로자들의 각오와 결심" 강조

- "지방과 농촌의 변화가 위대한 역사"라고 선전하며 지난 성과를 토대로 "지방발전정책과 농촌혁명강령을 본격 진척"시킬 것을 촉구
- 아울러, "지방과 농촌의 동시적·균형적 발전이 국가 부흥을 담보"하며, 두 정책은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함"을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0. 노동)

o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을 본격적으로 실행"(5.10. 노동)

- "부강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하여서는《새시대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을 본격적으로 실행해나가자!》구호를 투쟁과 전진의 기치로"
- "올해부터 매해 20개 시·군들에 지방공업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건설 … 양곡관리소와 지방종이공장 건설을 내밀며 농촌의 도시화, 문명화, 선진화를 실현 … 모든 일군들, 당원들, 근로자들이 각오와 결심을 단단히"
- "지금 지방이 변모되고 농촌의 어제와 오늘이 뚜렷이 대비, 위대한 력사"
-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질높은 제품들이 생산되여 자기 고장의 제품이 제일이라며 자랑을 한껏 … 병원들과 종합봉사소들에서 의료상 방조를 받아"
- "농업근로자들은 농촌살림집을 알뜰하게 꾸려나가면서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도 활발히 벌리고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끊임없이 개변"
-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신심과 낙관, 애국열을 배가해 주자면 새시대 농촌혁명강령과 지방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진척시켜 나가야"
- "이 구호에는 전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으로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확고히 담보해 나가려는 우리 당의 웅지"
-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서 새시대 지방발전정책과 농촌혁명강령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국가관광총국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 진행

1 개 요

o 국가관광총국은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진행(5.10. 중통)

- △다양한 국내관광봉사 조직 △관광객 접수계획 수립 △관광일정·노정 합리화, 운수수단 정비 등 장거리 관광 지원 △온라인을 통한 국내관광 소개 선전 등

o 코로나 이후 관광분야 기반 재정비 및 국내관광 확대 추진, 인민생활 향상, 경제발전 도모

* "국내 관광업, 인민들에게 문화정서생활을 누리게 하는 사업인 동시에 국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험 축적,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국가적 사업"('23.11. 민주조선)

- 제8차 당대회('21년 1월), 인민 문명생활 향유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위해 관광대상 정비, 소개선전방법 개선, 관광코스 다양화 등 관광사업 활성화 과업 제시
- 관광법('23년 8월) 제정, 국내관광 활성화 및 국제관광 확대 원칙 명시(제3조)
-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편의·여가시설 확충 지속 등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0. 중통)

o "국가관광총국에서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위한 사업 적극화"

- "국가관광총국에서 국내관광봉사를 다양하고 특색있게 조직진행", "해당 단위들과의 련계밑에 관광객접수계획을 세우고 근로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
- "삼지연시, 양덕군을 비롯 여러 관광지들에서 산악관광, 온천욕 등으로 보다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봉사체계가 확립"
- "관광일정과 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과 함께 운수수단보장대책과 륜전기재정비를 바로하여 장거리운행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
- "명승지관광과 체육관광을 비롯 다양한 형식의 관광봉사 진행"
- "주요 관광지들의 사계절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과 국가망홈페지와 이동통신망을 통한 국내관광소개선전도 해나가"

모내기 시작

1 개 요

o 북한은 "평원군 원화농장에서 10일 모내기 시작" 등 각지에서의 모내기 시작 관련 내용 보도(5.11. 노동·중통)

* 통상 북한은 '52.5.10. 김일성이 현지지도한 평원군 원화농장에서 첫 모내기 시작

o "한해 농사 운명 좌우하는 모내기"의 "적기 결속"을 강조

-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은 물질기술적 보장사업에 힘을 넣고 … 작전과 지휘 실속있게 진행" 등 일군들의 책임감 주문
- "과학농사를 생명선으로 틀어쥐어야", "영양냉상 모재배 도입비중이 지난해보다 제고" 등 과학농사 중요성 피력
- "뜨락또르(트랙터)와 모내는기계 만가동", "예비부속품 확보 및 이동수리활동 활발히 전개" 등 농기계 가동률 제고 노력 필요성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1. 노동·중통)

o "당중앙위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이 고조되는 속 절세 위인들의 영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평원군 원화농장에서 10일 모내기 시작"

o "한해 농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내기는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영농사업", "적기에 결속해야 안전한 소출 수확 가능"

- "알곡 생산목표 점령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앞그루작물 영양관리와 모내기를 동시에 다같이 내밀어야 하는 현실"
- "일군들은 물질기술적 보장사업에 힘을 넣고 농장들에서 모내기 선행공정을 앞세우며 일정계획을 드팀없이(흔들림 없이) 수행하도록 작전·지휘를 실속있게 해야"
- "과학농사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는데 알곡 증산의 중요한 담보", "영양냉상 모재배 방법 도입비중이 지난해보다 더 높아진 현실적 조건은 모내기 적기와 질 보장의 중요성 더욱 각인"
- "농촌들에서는 트랙터와 모내는기계 만가동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동수리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것 중요"

지방발전정책 실행을 과학기술로 견인 성과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지방공업공장·바닷가양식사업소의 생산공정 확립에 기여한 연구성과(5건)에 '최고과학기술상', 일꾼·과학자(20여 명)에 '2.16과학기술상'*을 수여했음"을 보도(5.11. 노동)

- 연구과제 수행 성공에 따른 '생산공정의 과학화·공업화', '생산토대 마련' 성과를 선전하면서 지방발전정책 성공을 견인할 과학기술 도입 강조

* △김일성대 전철용 등(바닷가양식사업소 통합생산체계 개발) △한덕수평양경공업대 박신철 등(식료공장 기름정제공정 개발) △장철구평영상업대 김옥희·김국철 등(피복제품생산 최량화) △지방공업성 이수옥(밀가루 부질강화제 생산공정 개발) 등에게 '2.16과학기술상' 수여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1. 노동)

o "지방발전정책실행을 과학기술로 힘있게 견인"

- "지난 3월 말 지방공업공장 및 바다가양식사업소들의 생산공정 확립에 기여한 5건의 연구성과들에 최고과학기술상이 수여되고 … 여러 대학, 과학연구단위의 일군, 과학자 20여 명이 2.16과학기술상증서를 받음."
- "김일성종합대학 지도교원 전철용 동무를 비롯 … 바다가양식사업소 통합생산체계를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들을 우리식으로 개발 완성"
- "바닷가양식사업소들에서 양식장 관리, 생태환경 유지 … 과학화 수준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전망"
- "기름정제 공정을 일떠세우는데 기여한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의 박신철 동무를 비롯 … 2.16과학기술상증서를 받음. 우리 식의 기름정제 공정이 완성되어 자기 지역의 원료로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피복제품생산의 최량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준비방법 … 장철구평양상업대학 … 김옥희, 김국철 동무들은 뛰어난 실력과 자질 발휘 … 당정책관철을 과학으로 담보해야 하는가를 실천적 모범으로 보여"
- "밀가루의 부질 세기를 높일수 있는 부질강화제생산공정을 일떠세운 지방공업성 식료연구소 소장 리수옥 … 2.16과학기술상증서가 수여"
- "지방발전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과학기술로 견인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 대회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 대회를 5.11.-12.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5.13. 노동·중통)

* 참석 : 김재룡·리일환·주창일(당비서), 김덕훈(내각제1부총리), 제8기 직업동맹중앙지도기관 성원, 각급 직맹조직 대표자 등

- (의정) ①중앙위 사업총화 ②규약개정 ③중앙지도기관 선거
- (진행) 국가 주악 → 집행부서기부 선거 → 의정 승인 → 당 중앙위 축하문 전달 → 의정① 보고·토론 → 의정② 보고·토의·채택 → 의정③ 토의 → 중앙위/지도기관 선거 → 맹세문 채택

o 김정은 위원장은 대회에 불참하였으나 5.14. 참석자들과 기념촬영(5.15. 노동·중통)

* 김 위원장, 직맹 제8차대회('21.5.) 시 서한만 송부, 기념촬영은 없었음.

o 부대행사로 △5.12. 참가자 강습(5.13. 보도) △5.13. 전투위훈기념관 참관(5.14.) △직총 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와 직맹초급선전일군들의 공연(5.14.) 등 진행

o 제9차 당대회('26.2.) 후속 행사로 8차 대회('21.5.25.-26.) 이후 5년 만에 개최

- 지난 5년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며 '책임적 노력과 헌신적 수고' 등 치하, 대외 메시지 없이, '새로운 5개년계획 완수', '사상교양' 등 내부결속에 집중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1.-15. 노동·중통)

o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 정치문화사업 진행"(5.11. 노동·중통)

- "김정은 위원장의 영상사진문헌들 학습 진행", "당창건사적관, 조선혁명박물관,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중앙계급교양관 참관", "화성거리, 새별거리 돌아봐"

o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진행"(5.13. 노동·중통)

- "사고관점과 투쟁기풍 변혁", "직업동맹사업 새로운 발전궤도에 들어서"
- "편향과 원인 분석총화", "동맹사업을 새로운 질적발전의 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실천방도 언급"
- "사상교양사업 참신하게 벌려나가야", "대중운동, 사회주의애국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 "국가 부흥에 참답게 이바지"

o (당 중앙위 축하문)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과 전국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에게”(5.13. 노동·중통)

- “당 제9차대회 결정 철저히 집행, 동맹사업 개선강화에 중요 계기”
- “노동계급의 긍지·자부로 빛나”, “책임적 노력과 헌신적 수고 높이 평가”
- “사회주의건설의 주력대오인 노동계급, 국가발전의 핵심역량, 강위력한 전위대로 준비시키는 것이 기본과업”
- “사업체계 및 기강 확립”, “기층조직강화”, “직맹일군 역할 강화”

o “제9차대회 참가자들 13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참관”(5.14. 노동·중통)

- “대회참가자들, 전시된 사진자료, 유물들을 돌아보면서 렬사들의 정신세계 간직”

o “김정은 위원장, 제9차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5.15. 노동·중통)

- “자력갱생, 자생자활의 투쟁정신을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더 높이 발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앞에 나서는 기본임무”
- “3대혁명의 기치높이”, “온 나라를 새로운 5개년목표점령에로 힘있게 견인”

건설 부문, 8기 성과 연재

1 개 요

o 북한은 지난주에 이어 8기 기간의 건설 성과를 연속적으로 부각(5.12., 5.15. 노동)

* 4.12.부터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시대" 보도로 8기 성과 선전, 건설 분야는 △5.7. 당 건설정책 △5.12. 평양 건설 △5.15. 산악·농촌 건설 실적 과시

- (평양) "송신, 송화지구 1만 세대", "최대 비상방역전 초긴장 속 화성 1만 세대", "화성지구 3단계, 공공·봉사건물", "화성지구 4단계, 다양한 봉사기지들"(5.12. 노동)
- (농촌 등) "농촌주택 11만여세대", "검덕지구, 수만세대", "자강도·양강도 수해지역 수만세대", "농촌 건설 제1순위는 농촌 살림집 건설", "원림 경관 조성"(5.15. 노동)

* (8기 성과) 25만 6,900세대 △(평양) 근 5만 6천 △(농촌) 11만 3천 △(검덕) 수만

o 보도는 김정은 위원장이 작성한 살림집 설계 형성안*이 "수천 건"에 달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 이념"이 반영되었다고 선전함으로써 '애민정치' 부각

* △"송화거리 1,000여 건" △"화성 1단계 1,630여 건" △"화성 2단계 근 1,000건" △"화성 3단계 660여 건" △"검덕지구 백수십 건" △"농촌·산간문화도시 540여 건"(5.12., 5.15. 노동)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2., 5.15. 노동)

o "제8기 기간의 위대한 변화의 첫 시작은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해마다 살림집 1만 세대씩 수도에 일떠세우는 것"(5.12. 노동)

- "2021년 3월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송화지구에서 역사적 사업의 장엄한 개시",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 진행"
- "건설의 직접적인 발기자,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설계와 공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살림집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
- "화성지구 2단계, 살림집별 형성안들 직접 지도", "화성지구 3단계, 교육, 보건, 상업 및 편의봉사 시설들을 비롯한 공공 및 봉사 건물", "화성지구 4단계 구역의 다양한 봉사기지"
- "2021년 3월 25일 보통문 주변 강안지구, 현대적인 다락식 주택구를 건설 구상", "2022년 4월 2일 인민의 새 보금자리"
- "평양 북쪽 관문구역의 전위거리", "2020년 6월 7일,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에서 여러 지구에 5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대책안 작성"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서포지구에 새로운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

o “총비서 동지께서 몸소 완성시켜 주신 형성안 무려 수천 건”(5.12. 노동)

- “송화거리 건설, 우리 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이념과 건축 발전 구상이 집대성되도록 지도하여주신 형성안은 무려 1,000여 건”
- “화성지구 1단계 건설 형성안은 1,630여 건”, “화성지구 2단계 형성안은 근 1,000건”, “화성지구 3단계 형성안은 무려 660여 건”
- “송화거리부터 화성지구의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기간 10여 차나 현지에 나오시여”, “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이념 철저히 구현”

o “수많은 살림집들을 국가의 부담으로 건설하여 근로자들에게 배정해 주는 공산주의적 시책, 제8기 기간의 중요한 성과로 강조”(5.15. 노동)

- “시·군들에서의 농촌주택 건설을 강력히 전개, 11만여 세대의 농업 근로자들 현대적인 새집에 입사”, “당 제8차 대회에 이어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 설계”
- “검덕지구의 산악협곡도시,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의 수해 지역들에 일떠선 농촌문화 도시”, “백수십 건의 살림집 설계 형성안 지도”, “총비서 동지의 애민헌신의 영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
- “농촌의 도시화, 현대화, 문명화 실현의 본보기, 교과서적인 실체”, “농촌 건설에서 제1순위는 농촌 살림집 건설”
- “2023년 1월 1일, 농촌 살림집 건설 계획을 무조건 책임적으로 집행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녹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언급”
- “2020년 10월 검덕지구 피해복구 현장 현지지도”,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에 2만 5,000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 결심”
- “총비서 동지의 영도 실록”, “완성시켜주신 형성안만 해도 무려 540여 건”

김정은 위원장, 여러 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5.11. '총·포탄 생산공장' 등 여러 군수공업기업소 방문(5.13. 노동·중통)

* 동행 : 조춘룡(당비서), 김정식(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박정천(국방성 고문), 김강일(국방성 부상 겸 장비총국장), 유창선(총참모부 포병국장), 김명선(국방성 병기심사국장), 김용환(국방과학원장)

** 김 위원장의 올해 들어 4번째 군수공장 방문(△1.3. 전술유도무기 △3.11. 신형 권총 △5.6. 자주포 △5.11. 총포탄 공장)

- "생산구조 갱신, 공정 합리적 배치", "관리 최적화" 등 군수공장 현대화 언급
- "제품 검수체계 제고", "검수 지표 세분화, 엄격 준수" 등 질적 측면도 강조
- 향후 과업으로 "전문화된 포무기 생산종합체(Complex)와 저격무기 생산공장 설립", "총포탄 생산공장 현대성, 전문성 제고" 제시

o 이번 행보는 '핵·재래식 병진' 기조 하에서 '군수산업 현대화' 강조 차원 평가

* 5.6. 군수공장 방문 시, 차기 당 전원회의에서 '군수공장 현대화 계획 심의·비준' 예고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3. 노동·중통)

o "김정은 동지는 5월 11일 여러 군수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

-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종 포탄과 총탄 생산에서 기록적인 장성을 이룩하며 무장력의 전투력 강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는 군수로동계급의 애국적 헌신에 감사를 표함."

o "김정은 동지는 군수공업의 구조와 생산체계, 시설들에 결점들이 잠재", "생산구조의 실용적인 갱신과 생산공정들의 합리적인 배치 등 현대화에 주력하며 생산의 효률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 언급"

- "군수공업기업소들에서 제품 검수체계의 현대성을 제고하며 검수지표들을 세분화하고 엄격히 준수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 강조"

o "김정은 동지는 박격포와 곡사포무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전문화된 포무기 생산 종합체와 저격무기 생산공장을 설립하며 총포탄 생산공장들의 생산 구조와 현대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주요과업들을 밝힘."

베트남 주석 특사 레 호아이 쭝 외무상 방북 동향

1 개 요

o 레 호아이 쭝 외무상은 베트남 또 럼 주석 특사 자격으로 5.12.-16. 방북 (5.13.-17. 노동·중통)

* 맞이·전송 : 박상길(외무성 부상), 레 바 빙(주북 베트남 특명전권대사) 등

o 레 호아이 쭝 외무상, 조용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예방·김성남 당 국제부장 면담 및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 양국 교류협력 강화 및 국제무대 공조 등 논의

- 레 호아이 쭝 외무상, 베트남공산당 제14차 대회 성과 공유

o 주북 베트남대사관,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및 베트남공산당 제14차 대회 축하 행사 개최, 사진전시회 및 친선모임 진행

* 참석 : 베트남 레 호아이 쭝(외무상), 레 바 빙(주북 베트남 대사), 박상길(외무성 부상) 등

o 레 호아이 쭝 외무상,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주체사상탑 참관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3.-17. 노동·중통)

o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무상을 만남.”

- “(김성남)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의 평양 상봉을 계기로 양국 친선관계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데 맞게 양당 간 교류를 가일층 강화해나갈 것”
- “양당 간 정치적 유대 강화, 공동 관심사 문제에 대해 토의, 견해 일치”

o “최선희 외무상,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무상과 회담”

- “레 호아이 쭝 외무상,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 거두기를 축원”
- “양국 간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조 심화, 대외정책기관들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지지협력 강화 합의, 지역 및 국제문제 의견 교환”

교육부문 혁신 성과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교육구조 개편 및 내용, 방법 개선 등 교육부문 혁신 성과를 선전(5.14. 노동)

- (고등교육) △(8기 성과) 새 교수관리제 도입·확대, 첨단·경계과학 학과 신설, 학부·학과·박사원 통합·정리, 정보기술·화학·재료 등 과학기술인재 양성 △(9기 추진) 인공지능학과 창설, 의료교육체계 개선, 지방공장 원격교육 등
- (보통교육) △(8기 성과) 제2차 교육강령 작성 및 교재 집필, 시범적 실시 △(9기 추진) 교원 자질·전문성 강화, 각급 교육단위 새 교수방법 개발 등

o 제8차 당대회 이후 '선진수준 교육' 목표 아래 교육 현대화 지속 추진

* △제9차 당대회, '교육토대 현대화' △최고인민회의('26.3.), '보통교육 질 향상, 고등교육 혁신' 등

** 개정「헌법」제43조('26.3.),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반영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4. 노동)

o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개선에서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되고 있음."

- "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이후 교육부문에서는 교육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교육을 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이 벌어짐"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학대학, 리과대학, 평양건축대학에서 새로운 교수관리제가 도입실시되고 그 경험이 다른 대학들에 널리 확대"
- "중요 대학들에 첨단 및 경계과학부문 학과들이 새로 나오고, 학부, 학과들과 박사원의 통합정리사업, 과학기술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조치 진행"
- "보통교육에서는 제2차 의무교육강령과 교재집필 발행, 시험 도입 진행"
- "당9차대회를 계기로 또다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
- "중요대학들에서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 새로운 교수관리제를 실시하는 대학들에서 선택과목들과 전공지표들을 늘이기 위한 사업", "의료교육체계 개선, 직업기술대학들에서 지방공업공장종업원들을 위한 원격교육을 시험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 등 추진"
- "보통교육부문에서도 제2차 교육강령을 실속있게,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는데 중심을 두고 교원력량강화와 교육방법 창조 도입에 배가의 노력"

영국의 송도원야영소 제재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문답

1 개 요

o 외무성 대변인은 5.15. 영국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제재 관련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5.15. 중통)

* 영국, 5.11.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이송 연루 대상 제재,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포함

** 우크라이나 인권센터, "우크라이나 아동 송도원 이송 및 선전 활용" 주장('25.12.4.)

o 사실관계를 부정하며 국가 이미지 훼손 지적, 아동인권 침해 주장

- "사실무근", "억지결부" 주장하며 "신성한" 어린이 시설에 대한 악의적 행태 비난
- "우리 국가의 대외적 영상에 먹칠" 등 기존 인권문제 반응과 유사
- 영국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 편승자로 폄훼, "러시아 악마화 음모" 주장

*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 '93년 원산에 개소, '24.6. 푸틴 방북 후 송도원야영소에서 북러 소년친선야영 진행('24.7., '25.7.)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5. 중통)

o "영국이 대러시아 제재명단을 발표하면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포함시키는 극히 도발적인 행위를 감행"

o "어린이 야영시설을 사실무근의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이주>와 억지로 결부, 우리 국가의 대외적 영상에 먹칠하고 북러친선협력관계를 폄훼해 보려는 반인륜적인 극악한 정치적 도발행위"

o "영국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에 편승하여 우리 국가의 주권행사를 걸고들고 반공화국전쟁연습에 무시로 가담하며 쌍무관계를 악화시켜왔음."

o "영국이 러시아를 악마화하기 위한 음모책동의 일환으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

흥남비료연합기업소 5월 비료 초과생산

1 개 요

o 북한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비료의 일평균 목표생산량을 초과하였다"고 보도(5.17. 노동)

- 5월 중 "이전에는 있어보지 못한 수송사업 신설조직, 대형화물차 동원 등을 통한 비료생산의 원료보장 강화" 선전
- 비료 생산 공정에 대한 과학적 운영 방법 도입 사례* 언급, 관련 기술 적용으로 비료 생산에서의 수율 향상 토대 마련 선전

  * △"암모니아응축분리탑 합리적으로 개조" △"실정에 맞는 가스분석계 개발도입"

- 설비 정상가동·생산성 제고 위한 기업소 내 직장 별 실적* 보도 등 증산투쟁 독려

  * △(발생로직장·가스청정직장)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 준수 △(원료직장) 질높은 원료를 가스발생공정에 수송 △(1질소직장·2질소직장) 순회점검횟수 증대 및 교대간협동 실시 △(압축기직장) 대중적기술혁신운동 전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7. 노동)

o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지난 4월 계획보다 수백 t의 비료를 더 생산한 기세를 계속 고조시키면서 5월에도 일평균 수십 t의 증산실적을 기록"

- "5월에 들어와 원료보장을 확고히 선행시키기 위하여 이전에는 있어보지 못한 수송사업을 조직", "대형 화물자동차들은 증산투쟁, 창조투쟁으로 들끓는 일터에 활력"
- "암모니아응축분리탑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암모니아 생산을 늘려", "자체의 실정에 맞는 가스분석계를 개발도입, 공정운전을 과학적으로 하고 실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발생로직장, 가스청정직장에서는 모든 생산자들이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 "1질소직장, 2질소직장의 노동자들이 산소분리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순회점검회수를 배로 늘이고 교대간협동을 긴밀히 하면서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
- "압축기직장에서는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어", "원료직장의 노동계급은 설비들의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원료분쇄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질높은 원료를 보내주고 있어"

김정은 위원장, 전군 사단·여단 지휘관 회합 소집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5.17. 당 중앙청사에서 전군 사단·여단 지휘관 회합 소집(5.18. 노동·중통)

* 참석 : 리영길(총참모장), 박정천(국방성 고문), 각급 연합부대 지휘관

- 김 위원장 집권 시기 '사·여단 지휘관 회합' 형태는 처음으로*, 당의 군사노선·정책 주입 차원

* 김정은 시기 소집 사례 : △'21.7.24. 제1차 '군 지휘관·정치일꾼 강습회'(연대장급 이상) △'23.12.31.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소집·격려 △'24.11.15. 제4차 대대장·정치지도원 대회

o "중요군사문제 담화"를 통해 "군 현대화", "남부국경 강화" 강조

- "남부국경 제1선부대 강화", "국경선을 요새로 만들 데 대한 당의 영토방위정책" 언급
- "훈련체계 현대화", "군 조직 개편"과 함께 "계급·주적의식" 제고도 강조

o 이번 행보는 중동전쟁 등 유동적 정세 하에서 '군 결속' 및 '강군 육성' 주문 평가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8. 노동·중통)

o "김정은 위원장은 5월 17일 전군의 사·여단 지휘관들의 회합을 소집"

o "김정은 위원장은 중요군사문제들에 대하여 담화"

- "현대전의 변화되는 양상에 맞게 실용적 훈련을 강화", "군대를 군사편제적으로 갱신", "군사기술장비들이 현대화되는데 맞게 모든 공간에서의 작전개념을 새롭게 정의"
- "남부국경을 지키고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데 대한 우리 당의 영토방위정책에 대하여 언급"
- "5개년 계획기간의 과제들이 수행되면 우리 군대의 전략적 행동의 준비태세는 현재와 대비할 수 없게 갱신", "전쟁억제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

o "전군의 지휘관들과 각급이 계급의식, 주적의식을 계속 높이며 언제나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본령에 충실해 나가야 함."

국제경기대회 참가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2026년 AFC U-17 여자 아시안컵경기대회 우승 성과 선전(5.18., 5.20. 노동·중통)

* △(일정) 5.1.-17. △(장소) 중국 △(참가국)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등 12개 국가

- 우승 소식 보도("영예의 1위 쟁취", 5.18.)에 이어 선수단 귀국 및 축하 소식 보도(5.20.) 등 북한 매체에 반복 게재

* △일본과의 결승경기에서 5:1로 승 △동 대회 우승 및 최우수 선수상·골키퍼상, 득점왕, 페어플레이상(경기도덕상) 획득 △통산 5차례 우승

o 또한, '25-'26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경기대회 소식 보도(5.21., 5.24. 노동·중통)

* △(일정) '25.10.3.-'26.5.23. △(장소) 중국·한국 등 △(참가국)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등 12개 국가

- △"준결승경기 한국에서 진행", "한국의 수원팀에 2:1로 승" △"결승경기에서 일본 선수들에 1:0으로 승" △동 대회 첫 우승 및 최우수 선수상 획득

o 이 외, '26 아시아역도선수권 경기대회 소식 여러차례 소개(5.13., 5.15.-18., 5.23., 노동·중통)

* △(일정) '26.5.9.-17. △(장소) 인도 △(참가국)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등 28개국 172명 참가

** "금메달 18개 포함 30개의 메달 획득, 세계신기록(8건) 및 아시아신기록(10건) 달성"

o 북한은 국제대회 성과 소식을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체제 결속력 제고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8.-24. 노동·중통)

o "2026년 아시아축구연맹 17살미만 여자 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1위" (5.18., 5.20. 노동·중통)

- "일본팀과의 결승경기가 17일에 진행", "일본팀을 5:1로 이기고 영예의 우승을 쟁취", "6차례의 대전에서 전승을 기록", "도합 36개의 득점을 기록"
- "1위를 쟁취한 우리 선수들이 19일 귀국", "조국의 장한 딸들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뜨겁게 맞이"
- "전위거리, 버드나무거리, 개선거리, 창전거리 등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여자축구선수들에게 시안의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열렬히 축하"
- "자랑찬 경기성과는 당 제9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개척기를 일대 고조기, 줄기찬 변혁의 전성기로 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

o “우리 나라의 내고향팀, 2025-2026년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선수권보유자 연맹전 우승컵 쟁취”(5.24. 노동·중통)

- “내고향팀과 한국의 수원팀사이의 준결승경기가 20일 한국에서 진행”, “한국의 수원팀을 2:1로 이기고 결승단계에 진출”(5.21. 노동·중통)
- “일본의 도쿄 베르디 벨레자팀 사이의 결승경기가 23일 진행”, “김영경 선수가 정확한 차넣기로 득점에 성공”, “결승경기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을 1:0으로 이겼음.”
- “시상식에서는 1위를 한 우리 나라의 내고향팀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 김경영 선수에게 최우수 선수상이 수여”
- “당 제9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를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진심과 고무적 힘”

o “2026 아시아역기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 금메달 18개를 포함한 30개의 메달 쟁취, 8건의 세계신기록, 10건의 아시아신기록 수립”(5.23. 노동·중통)

9기 1차 과업 관철을 위한 농촌살림집 건설 독려

1 개 요

o 평양시에서 "올해 계획된 농촌 살림집 건설에 주력하고 있음"을 선전(5.19. 노동)

* 올해 농촌 건설과 관련 △3월, "올해 농촌건설준비사업 전국 시·군에서 추진", "락랑·만경대·사동·력포·형제산구역에서 기술실무적 대책을 세워 생산을 늘려"(3.6. 노동) △4월, "농촌건설 기초공사" 시작 등 보도(4.12. 노동)

- △(강남군) "마감공사 진행", "당정책, 건설법에 준하여 감독·통제" △(락랑구역) "시공의 질 평가, 사업총화" 진행 △(형제산·력포·사동·강동군) "선진공법 도입"
- 농촌 건설 평양시 지휘부는 △"일군 실력향상" △"시공의 질, 건설의 과학화 수준" △"건설의 기계화 비중 제고"를 올해 목표로 "선진적인 공법 확대 도입" 시도

* 한편, 농촌 건설 9기 과업 추진을 위해 △<농촌건설평양시마감건재전시회-2026>(5.6. 노동) △제18차 건축미학토론회(5.13. 노동) 등 개최하여 설계·시공역량 제고 등 도모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9. 노동)

o "평양시 일군, 건설자들이 전국의 앞 장에서 올해 계획된 농촌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어"

o "강남군에서는 벌써 마감공사들이 진행", "락랑구역을 비롯한 여러 구역, 군에서도 시공의 질 제고에 선차적 힘을 넣으면서 공사 성과를 확대"

o "농촌건설평양시지휘부 일군들 역할 제고", "일군들 실력 향상, 시공의 질, 건설의 과학화 수준, 건설의 기계화 비중 제고, 올해 목표"

– "선진적인 공법들 확대 도입", "시공, 건설감독일군들 능력 제고", "시공역량 강화", "시공의 질 제고 사업을 공사실적과 밀접히 결부하여 총화"

o "강남군에서는 건설 감독 일군들이 당정책적 요구, 국가 건설법에 철저히 준하여 건설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 통제를 강하게 진행"

o "락랑구역에서는 시공의 질을 정확히 평가, 하루 사업총화를 실속있게"

o "형제산구역, 력포구역, 사동구역, 강동군에서 건설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고 선진적인 공법들을 도입하면서 건설 성과를 확대"

지방공업공장 정상화를 위한 수천 정보의 원료림 조성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지방공업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원료 보장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해 수천 정보의 원료림을 조성하여 지방발전정책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선전(5.19. 노동)

- △(평남) 나무심기, 수백 정보의 원료림 조성 △(황남) 경제적 가치가 높은 나무 선정, 나무모 보장 △(함남) 천백여 정보 원료림 조성 △(강원) 2,500여 정보 수유나무림 개조 등

* 올해 지방발전정책 3년차로 지방공업공장 생산 정상화를 위한 품종 수 확대, 품질 제고, 지역간·공장간 사회주의 경쟁 유도, 생산기술 공유·이전, 원료기지사업소 조성 등을 지속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19. 노동)

o "당의 지방발전정책을 실천으로 받들어감. 각지에서 올해에 들어와 수천 정보의 원료림 새로 조성"

- "평안남도에서 원료림들에 대한 나무심기를 진척, 성천군에서는 단위면적당 수익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게 원료림 조성사업을 책임적으로 … 평원군에서 백수십 정보의 기름나무림을 조성, 숙천군에서도 민고로쇠나무를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많이 심음. 올해 봄철에 수백 정보의 원료림을 조성"
- "황해남도에서 기름나무림, 종이원료림 조성을 계획대로 밀고나가기 위한 정책적 지도와 기술적 지도를 심화, 도일군들은 …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보장하고 산림의 생태환경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며 사업을 내밀어"
- "함경남도에서도 … 원료를 충분히 보장할 목표 밑에 천백여 정보의 원료림을 새로 조성, 시·군들에서는 지대적 및 기후적 조건에 적합한 수종들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과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을 면적과 위치들을 확정, 일군들이 직접 현지답사를 진행하면서 적지를 확정하였으며 원료림 조성에 요구되는 나무모 확보에 주목"
- "강원도에서도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이미 있던 수유나무림을 우량한 품종의 수유나무림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서 실적을 올리어", "당의 지방발전정책을 받들고 도안의 근로자들은 공정별 작업을 기술적 요구대로 하면서 2,500여 정보의 수유나무림 개조를 진행"

단천발전소 1단계 준공식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단천발전소 1단계 준공식(5.18.) 진행을 보도(5.20. 노동·중통)

* 진행 : 준공사(박태성) → 테이프 커팅 → 축하공연 → 1호·5호 발전소 및 댐, 종업원살림집 등 시찰

** 참석 : 박태성(내각총리), 전승국(부총리), 리광남(기계공업상), 양명철(평안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o '17.5.18. 착공식 이후 만 9년 만에 언제(댐) 2개소 및 1호·5호·6호 발전소를 포함한 1단계 공정 건설 완료

- 김정은 위원장, 제7차 당대회('15.5.6.-9.)에서 '대규모 단천발전소 최단기간 건설' 과업 제시 후 '20년*(창당 75주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지연

* "당 창건 75돐을 맞으며 1단계 공사를 기어이 끝낼 일념"('20.1.28. 노동)

o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가 "전력공업발전"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

- 북부지대 수자원을 동해로 넘기는 "최대규모*"의 수력자원 개발사업으로 보도

* "거창한 대건설이 결속되면 총 수백m의 고낙차를 얻어 수십만kW의 전기를 생산"('20.1.28. 노동)

- 또한, 단천발전소 2단계 건설이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투쟁목표"임을 언급하며 "1단계 건설에서 얻은 경험·교훈"을 토대로 건설기간 단축 독려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20. 노동·중통)

o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결", "두 개의 언제(댐)와 함께 단천1호, 5호, 6호발전소들을 일떠세워"

- "단천발전소 1단계 준공식이 18일 현지에서 진행", "북부지대 여러 강하천의 물을 동해에로 넘기는 최대규모의 수력자원개발사업에서 뚜렷한 성과가 이룩되고 앞으로의 발전소건설을 보다 확신성있게 내밀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축적"
-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투쟁목표들을 점령하는 데서 단천발전소건설 사단은 줄기찬 개척과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계속혁신, 연속도약의 기상을 높이 떨쳐나가야"
- "2단계 건설에 진입한 모든 여단들이 양양된 투쟁정신과 기세로 매일 공사과제를 넘쳐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방대한 발전소 건설을 능히 앞당겨 완공할 수 있다는 확신", "1단계 건설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토대하여 능률적인 건설장비들을 보강하고 수력구조물 건설에서 전문화 수준을 더욱 높여"

미국의 대남 무기 판매 관련 중통 논평

1 개 요

o 북한은 미국의 대남 '신형 헬기 판매승인' 등을 비난하는 논평 발표(5.21. 중통)

* 미 국무부는 한국에 다목적 헬기와 아파치 헬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등 42억불 규모의 군수장비 판매 승인 발표(5.18.)

- 미국의 무기판매는 "지역 안보 도전", 한국의 군비증강은 "방위수요 초월, 美 전략 종속"으로 우회 비난
- 일본·대만 대상 미국의 무기수출도 거론하며 "대만해협과 아태지역 긴장 야기", "대칭적 조치 실행 강구" 등을 언급, 국방력 강화 정당성 주장

o 이번 논평은 한미의 군비증강에 대한 '짚고 넘어가기식 반응' 평가

- 시기적으로 '대만무기 판매' 문제가 거론된 미중 정상회담(5.14.)과 '대북압박 반대'를 표명한 중러 정상회담(5.20.) 직후 주목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21. 중통)

o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추종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책동이 보다 본격화되면서 간과할 수 없는 지역적 안보 도전으로 부상"

- "최근 미국무성은 한국에 대한 40억$ 이상에 달하는 24대의 신형해상작전 직승기《MH-60R》와 공격용 직승기《AH-64E 아파치》용 부분품 판매 승인"

o "지난해 10월 미한수뇌회담 합의에 따라 강행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무기수출과 한국의 과욕적인 군비증강책동의 일단"

-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략적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돌격대로 군사적 활용도를 높이려 한다는데 미국의 무기판매책동의 본질"

o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국과 일본,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동맹국 및 동반자들에 대한 미국의 무기제공책동은 조선반도와 대만해협을 비롯한 아태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키는 근원"

o "공화국의 방위력은 갱신진화와 임전태세의 견지로써 적수국들의 안보위협을 통제하고 국가의 주권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해 나갈 것"

무산광산연합기업소 120만산 대발파

1 개 요

o 북한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5.20. 120만산 대발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도(5.21. 노동·중통)

* △1월 100만산 대발파(1.25.) △3월 120만산 대발파(3.30. 보도)에 이은 올해 세 번째 대발파

** '산'은 폭발로 생기는 부산물의 양이 ㎥ 정도 크기를 의미하는 북한식 체적 단위

o 북한은 금속공업 부문 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원자재(철정광) 공급 보장을 지속 강조, 향후에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등에서의 대발파 지속 예상

o 한편, 무산광산연합기업소는 △대발파 △설비 보수 등 철정광 증산 노력과 함께 무산-청진간 철정광 수송관 증설 사업도 추진(5.6. 노동)

- 생산한 철정광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도 병행 중

* 무산광산연합기업소(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생산된 철정광은 정광 수송광을 통해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에 운송·공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21. 노동·중통)

o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난 20일 120만산 대발파로 철산봉을 또다시 들었다 놓아"

-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되는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현행생산과 전망생산을 다같이 내밀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

o "8개소에서의 갱도굴진과 회전식착정기에 의한 구멍뚫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으로 하여 문제가 적지 않아"

- "로천분광산과 무산지질탐사대를 비롯한 단위들을 선발, 갱도굴진을 맡기는 한편 현장에서 기술협의회를 거듭하면서 대발파의 성과적 보장 위한 대책 세워"

- "로천분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 합리적인 굴진방법과 발파방법들을 받아들이고 발파준비에서 제기되는 자재와 부속품들을 해결"

o "무산지질탐사대의 로동계급은 착암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정상가동 보장", "암질조건에 맞는 작업방법들을 탐구도입하여 매일 높은 굴진속도 기록"

조선소년단 창립 80주년 계기 충성의 편지이어달리기 출발모임

1 개 요

o 북한은 5.20. 조선소년단 창립(6.6.) 80년 계기 각 도 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출발모임 진행을 보도(5.21. 노동·중통)

* (참가) 해당 지역 당, 정권기관 책임일군들,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소년단원들

- 전체 단원 편지 낭독 → 이어달리기 대열에 편지 전달 → 결의토론 → 평양 향발

o 조선소년단* 창립 80년을 앞두고 새 세대 대상 사상교양 및 충성심·애국심 고취

* △(설립) '46.6.6., 청년동맹 산하 △(단원) 만7세~16세(소학교 2학년~고급중 3학년) 의무 가입

- 소년단 창립 계기 '충성의 편지이어달리기' 행사는 77주년('23년)에 이어 두 번째

- '조직성, 규율성, 집단주의 정신 발휘' 등을 부각하며 내부결속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21. 노동·중통)

o "조선소년단 창립 80돌을 맞으며 김정은 원수님께 드리는 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이어달리기 출발모임이 20일 각 도들에서 진행"

- "혁명의 계승자로 자라나는 학생소년들은 조선소년운동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부강조국의 미래를 떠받드는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애국자로 준비해 갈 결의를 굳게 새겨 안아"

- "모임들에서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아들딸, 사회주의조선을 빛내는 혁명인재로 준비해 나갈 전체 소년단원들의 충성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낭독되었음"

- "아버지 원수님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들이 편지이어달리기 대열들에 전달"

- "결의토론에서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창립 80돌을 온나라 소년단원들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

- "그들은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 강인한 의지와 집단주의 정신을 발휘하며 씩씩하게 달려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전구 마다에서 구슬땀을 바쳐 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힘과 고무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함"

- "토론자들은 온나라 소년단원들의 충성의 맹세를 안고 아버지 원수님께서 계시는 평양에로의 발걸음을 힘차게 다그칠 결의 표명"

자연재해방지 대책 준비

1 개 요

o 북한은 올해 엘니뇨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견하면서, 재해성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하여 모든 지역과 단위들의 주동적 재해 예방대책 강구 요구(5.21. 노동)

- 올해 2월부터 가뭄 지속, 향후 태풍·폭우 등 재해성 이상기후 가능성 우려

  * 적도 태평양동부 바닷물온도가 평년보다 0.5℃ 높아져 수개월동안 지속되는 현상

o 이에, "국토관리사업과 재해방지사업"에 모든 일군들의 책임적 자세 강조

- △저수지·강하천 물관리체계 구축 △강하천유역 큰물 위험개소 대책 △내륙지대 산사태발생 위험개소들 사전 대책 등

- 특히, 위험개소 감시초소 마련, 비상연락체계 수립, 필수구조수단을 비롯 비상동원수단(구조대, 구호대, 의료대 등) 등 긴급대응 준비에 주안

o 제9차 당대회 시 "각종 재해위기에 주동적으로 준비있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 강구" 등 국토관리 부문 혁신 과업 제기

- 올해 극심한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 관찰, 과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반복되었던 만큼 향후 재해 예방대책 지속 강조 전망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21. 노동)

o "자연재해방지를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자"

- "올해 엘니뇨현상이 우심해질 것으로 예견", "모든 지역과 단위들에서 재해성기상현상에 주동적으로 준비있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 강하게 세울 것을 요구"

- "현시기 공화국정부가 힘있게 추진해야 할 중대사는 국토관리사업과 재해방지사업", "국가적으로 물관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 "주요강하천들에 큰물조절능력을 높이기 위한 완충지점건설"

- "연안지역들과 하천지역들에서는 재해성자연현상에 해당한 대응방안과 관리체계를 완비", "내륙지대들에서는 사태발생위험개소들을 사전에 대책하고 각종 재해요인에 대비한 대응책들을 책임적으로 세워 나가야"

- "재해위기에 주동적으로 준비있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데서 긴급대응준비를 잘하는 것이 또한 중요"

당 중앙위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6월 하순 소집 결정

1 개 요

o 북한은 5.24.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당 중앙위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소집을 결정, 발표(5.25. 노동·중통)

- △(시기) 6월 하순 △(안건) '26년도 당·국가정책 집행정형 중간총화, 하반기 사업 및 중요문제 토의

o 금번 전원회의는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중간점검 성격

-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첫해 상반기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할 것으로 전망

  * 전원회의 소집 발표 이후, 노동신문 사설 등을 통해 상반기 과업 완수를 연일 촉구

- 김정은 위원장이 5.6. 중요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 시 언급한 군수공장 현대화 사업 등도 논의 예상

  * "제9기 제2차 전원회의가 해당 군수공업기업소들의 기술개건 계획사업들과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비준하게 될 것"(5.8. 노동·중통)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25.-30. 노동·중통)

o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5.25. 노동·중통)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026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을 중간총화하고 하반년도 사업과 일련의 중요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6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

o "당결정을 무조건 집행하는 규율을 철저히 확립하자"(5.28. 노동)

- "상반년도 사업정형을 엄정히 총화지어야 할 시각", "올해는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인 것으로 하여 당 결정 관철의 중요성과 의의는 더욱 부각", "당 결정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과 기풍을 높이 발휘"

o "뜻깊은 올해의 상반년 투쟁정형을 떳떳이 총화받자"(5.30. 노동)

- "충성과 애국의 힘으로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드팀없이 완수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를 떳떳이 맞이하자"

김정은 위원장, 중국 산시성 탄광가스폭발사고 관련 위문전문 전달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5.24.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 신성 탄광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한 위문전문을 전달(5.25. 노동·중통)

- '22.3. 중국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위문전문 후 4년 만에 전송

* '23.12. 중국 간쑤성 지진 당시 북한은 사실관계만 보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25. 노동·중통)

o "나는 귀국의 산서성에서 탄광가스폭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고 총서기 동지와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 피해자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문을 표합니다."

o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의 영도 밑에 중국인민이 피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며 유가족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안정된 생활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로운 조선식문명창조 강조

1 개 요

o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중요 원칙으로 '새로운 조선식문명 창조' 강조(5.25. 노동)

- 새로운 조선식문명을 창조한다는 것은 문화전통·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주체성·민족성·현대성을 결합한 우리식의 사회주의문화를 창조하는 것으로,
-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고 나라의 실정에 맞는 문화적재부, 생활양식 창조 △국가의 위상을 떨치고 노동당 시대의 문명을 상징하는 문화적 재부 창조 중시

o 주체적 입장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문화' 창조·발전 주문

- '우리것이 제일', '조선식문명으로 세계를 압도' 등 우리국가제일주의 고취

* △제8차 당대회('21.1.), "사회주의문화의 새로운 개화기 마련, 새 세기 우리식의 문명으로 인도" △제9차 당대회('26.2.), "건전하고 고상한 사회주의생활이 온 사회에 지배하도록 하여야"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25. 노동)

o "김정은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새로운 조선식문명창조"

- "새로운 조선식문명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우수한 문화전통과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주체성, 민족성,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식의 독특하고 고상한 사회주의문화를 창조한다는 것"
- "새로운 조선식문명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문화를 고수하고 변천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원칙적 요구"
- "우리식 사회주의문화를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 나가는 여기에 조국의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음"
-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문화, 우리식 생활양식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체적 입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 "모든 부문, 단위에서 훌륭한 물질문화적 재부들, 새로운 문명을 더 많이 창조하여 사회주의생활양식과 도덕기풍을 습관화, 체질화하게 하여야"
- "교육, 과학, 문학예술, 보건, 건축예술을 비롯 문화건설의 각 부문들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문명을 상징할수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창조하여 우리의 문화가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앞서나갈 수 있게 하여야"
- "당원, 근로자, 청년들이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하며 혁명하는 시대, 문명발전을 지향하는 오늘의 미감에 맞는 우리식 새로운 생활문화를 적극 창조해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제26차 전체대회 진행

1 개 요

o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는 5.23.-24.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제26차 전체대회를 진행(5.26. 노동·중통, 5.23.-24. 조선신보)

* 조총련 전체대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 조총련 최고의사결정기구

- 허종만 의장 등 대의원 1,500명 참석

- 의안 : ①총련 제26차 전체대회에 제출하는 총련 중앙위 사업보고 ②총련의 강령 및 규약 개정 ③재정결산 및 예산안 ④총련중앙기관의 역원 선거

o (과업) '25.5. 김정은 위원장 서한에 따라 총련 결성 80주년(2035년)까지 10년간을 '새로운 투쟁기'로 내세워 ①권익옹호 ②새세대 육성 ③민족성 고수 추구

- ①(권익 옹호) '고교무상화' 실현, 조국 자유왕래, 기업활동 차별 금지
  ②(새세대 육성) AI시대 교육, 안정적인 학생 확보, 조선대 학제개편
  ③(민족성 고수) 민족문화운동, 민족문화센터 확충, 문예창작활동,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지원, 민족 결혼사업 등

o (강령) '04년 이후 22년 만에 강령 개정 △조국통일(6조)*, 조일평양선언(5조) 삭제 △김 위원장 역점사업(권익옹호, 새 세대 육성, 민족성 고수) 명시

* "우리는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재일동포들의 민족적단합과 북과 남, 해외동포들과의 유대를 강화발전시키며 반통일세력을 배격하고 련방제 방식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취하는데 모든 힘을 다한다."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26. 노동·중통)

o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제26차 전체대회가 23일과 24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제26차 전체대회에 보낸 축전을 남승우 부의장이 낭독"

- "강령적 서한에서 제시된 4대과업 관철에서 이룩한 사업성과와 경험에 대해 언급", "일본반동들의 총련탄압소동과 민족교육 차별책동, 재일동포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악랄하게 감행된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무궁한 힘을 총발동하여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물리침"

o “박구호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이 첫째 의안에 대해 보고”

- “총련은 결성 80돐까지를 새로운 투쟁기로 내세우고 애국애족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갈 것”, “동포제일주의조직으로 보다 튼튼히 다질 것”
- “총련은 26기 기간 권익옹호, 새세대 육성, 민족성 고수의 3대 주력사업에서 현 난국을 뚫고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것”
- “총련은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보다 철저히 세우며 모든 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의 충실성과 애국심을 더 억세게 다지는 선전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릴 것”

경공업 제품 질제고를 위한 규격화·현대화 지속 강조

1 개 요

o 북한은 경공업부문에서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규격화·현대화 사업을 추진 강조 (5.26., 5.28. 노동)

o 지방공업공장 간 "개발경쟁·품질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규격화사업 개선을 "절실한 문제"로 언급

- "국제규격·선진규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실정에 맞게 도입할 것을 표명
- "규격 관련 교육사업 강화" 및 "관련 종사자 협의회 진행" 등 규격화를 통한 질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 도입

o 품질관리체계 정립 등 경공업부문의 현대화사업 추진 또한 강조

- 생산공정 설비 현대적 재정비 및 기능공 기술전수, 실속있는 총화·평가사업 추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26., 5.28. 노동)

o "제품갱신은 곧 규격갱신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규격화사업을 부단히 개선", "지방공업공장들 사이의 개발경쟁, 품질경쟁이 활기를 띠고 벌어져 중앙제품과 지방제품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고있는 오늘 규격화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절실한 문제"(5.26. 노동)

-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국제규격들과 선진적인 규격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 "국제적 기준과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게 받아들이며 규격을 부단히 갱신"
- "생산자대중이 규격화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한편 규격에 대한 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경제전반에 규격 중시 기풍을 확고히", "기술학습을 계기로 종업원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들의 규격들을 환히 알도록", "규격정보 사업을 강화하고 규격을 갱신하기 위한 협의회를 월 1차 이상 진행"

o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자면 경공업부문에서 현대화사업을 다그쳐야"(5.28. 노동)

- "낡고 뒤떨어진 생산공정과 설비들을 가지고서는 제품의 질을 보장할 수 없으며 세계적인 제품경쟁이 뛰어들 수 없어"
- "공장에서는 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선진적은 품질검사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내밀어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
- "단위들에 대한 참관도 조직", "단위의 고급기능공들을 초빙하여 종업원들에게 기술을 전수", "총화와 평가사업도 실속있게 하여 누구나 기술기능제고에 사활을 걸고 나서도록", "담당한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적 지표를 환히 꿰들고 공정지도서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나가도록"

평양시 인민생활향상지원체계《호주》선전

1 개 요

o 북한은 평양시 인민위원회에서 개발·운영하고 있는 인민생활향상지원체계《호주》의 운영 성과 및 주민 반향 소개(5.26. 노동)

-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한 생활상 의견·민원을 시·구역 인민위원회의 해당 부서가 접수 및 처리해 주는 체계로,
- 인민들이 일군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도움을 요청한 TV 수신 장애, 살림집 이용허가증 발급 절차 등 생활상 문제 해결 사례 선전

o 정보기술 기반 주민 소통창구 운영 선전, 인민정권의 책임성·봉사성 부각

- '인민의 이익이 최우선, 절대시' 등 강조,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 선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26. 노동)

o "인민생활향상지원체계 ≪호주≫에 대한 반향"

- "주민들이 생활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인민생활향상지원체계 ≪호주≫를 통해 제기하면 시인민위원회와 가입자가 살고 있는 구역인민위원회 해당 부서들이 접수받고 필요한 대책을 세움"
- "이것은 인민적시책이 모든 가정들에 제때 정확히 가닿게 하고 정권기관 일군들이 수도의 매 가정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는데 도움"
- "평양시민들과 시안의 정권기관들 사이의 대화창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호주≫ 홈페지(홈페이지)"
- "인민이 주인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활과정에 애로가 생기면 당, 정권기관들을 찾아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 일군에게는 인민의 충실한 심부름군이 되어 생활상 편의를 반드시 해결해 주는 것이 응당한 본분"
- "이 홈페지가 운영되면서부터 인민들은 앉은자리에서 자기들의 생활상 문제들을 호소하고 일군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음"
- "단순히 정보기술수단의 도입이 가져온 결과라고만 볼 수 없음. 인민의 이익이 최우선, 절대시되는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김정은 위원장, 국방과학연구기관 중요무기시험 참관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5.26. 미사일총국과 국방과학원의 중요무기시험을 참관(5.27. 중통)

* 참석 : 박정천(국방성 고문), 조춘룡(군수공업부장), 김정식(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미사일총국장), 김용환(국방과학원장), 김강일(국방성 장비총국장) 등

-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전술순항미사일 △240mm 방사포 무기시험 진행

o 'MDL(군사분계선) 인근 화력체계 보강'을 지속 주문하며 포·미사일 성능 개량 추진

- "남북국경 포병여단에 장비되는 전술순항미사일" 언급
- 노후화된 전방 화력체계 대체를 위해 유도성능 개선 및 자동화된 사격통제시스템 도입 추진

* "자치항법체계와 지형대조항법체계가 결합되고 인공지능 유도기능이 도입", "사격조종계통과 자동화체계가 현대전에 맞게 완전히 갱신", "전투적용성이 제고"

- "다용도미사일발사체계"에서 240mm 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 연쇄 발사 장면도 공개

o 이번 행보는 당대회 과업 이행 등 군사기술적 수요에 의한 신형 무기시험 평가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27. 중통)

o "공화국 미사일총국과 국방과학원이 5월 26일 국방발전 5개년 목표 수행을 위한 포 및 미사일무력 현대화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새로 개발된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체계와 다연장 전술순항미사일 무기체계시험을 진행"

- "전술탄도미사일의 특수사명 전투부 위력과 사거리가 연장된 240㎜ 조종 방사포탄의 초정밀 자치유도 항법체계의 믿음성, 전술순항미사일의 인공지능 유도 명중 정확성을 분석평가"

o "김정은 위원장은 시험결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중요한 고난도 국방과학기술들이 실천무기시험에 도입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

- "남부국경지역 장거리 포병여단들에 장비하게 되는 전술순항미사일에 대하여 그 군사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 “모든 발사차량들의 사격조종계통과 자동화 체계가 현대전에 맞게 갱신되여 전투적 용성이 제고”, “화력체계 자동화, 장거리화, 초정밀화를 완벽하게 갖추게 됨.”

o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강력한 포병무력을 건설하는 것은 무력건설에서 우리가 최우선시하는 정책방향”

- “대적하는 세력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는 파괴력”, “적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주게 됨.”

o “핵무력과 상용무력을 지속적으로, 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노선은 불변”

- “군사주권을 수호하고 자위권을 책임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우리의 구상은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

싱가포르 외무상 방북 동향

1 개 요

o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상이 5.26.-27. 북한을 방문(5.27.-28. 노동·중통)

- 북한 외무성 초청을 받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문(5.27. 싱가포르 외교부)
- 싱가포르 외무상 방북은 북미정상회담('18.6.10.) 직전 방북(6.7.-8.) 후 8년만

o 5.26. 최선희 외무상과 외교장관회담

* 참가 : 박상길(외무성 부상), 리길성(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

- 양측 "친선협조관계 강화 희망", "쌍무관계 다방면적 발전",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 언급

* 싱가포르 외무상,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최선희 초청 및 북한의 대화채널 지속적 개방 독려(5.27. 싱가포르 외교부)

o 5.27.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예방

* 참가 : 박상길(외무성 부상), 리길성(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

- △(조용원)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설명"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각국이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5.27. 싱가포르 외교부)

o 최근 베트남 외무상 방북(5.12.-16.)에 이어 아세안 지역 고위급 교류 증가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27.-28. 노동·중통)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가 26일 평양의사당에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상과 회담"(5.27. 노동·중통)

- "싱가포르정부와 인민은 조선과의 친선협조관계가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 "두 나라 외무성들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여 쌍무관계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데 대하여서와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이 교환"

o "조용원은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무상과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5.28. 노동·중통)

쿼드(QUAD) 외교장관성명 관련 외무성 대변인 문답

1 개 요

o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5.28. 쿼드(QUAD)**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 관련 중통 기자 질문에 대답(5.28. 중통)

* 5.26.(화) 쿼드 외무장관 △인태질서 △동중국·남중국해 △북한 비핵화, 제재이행(북러협력) △해양안보 초국가범죄 △핵심광물 공급망 △신기술 AI 등 관련 공동성명 발표

** 미국·호주·일본·인도 4자 안보협의체(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 △2004년 쓰나미 대응 협력을 기원으로 2007년 출범 후 중단, 2017년 재가동 △중국 견제 성격의 지역 다자협력 플랫폼

o 쿼드 공동성명 계기 외무성 대변인 문답 반응, 전년 대비 격 하향

* '25년 쿼드 외무장관 공동성명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25.7.3.)로 비난

o "주권적 권리·안전이익·발전권 철저히 수호" 등 핵 보유 정당성을 강조하며 쿼드의 진영대결 구도 비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28. 중통)

o "아태국들이 직면한 도전과 위협 심히 왜곡, 특정국 겨냥 적대의사 노출"

- "중국 남해·동해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협력 강화를 운운한 것은 일본 재무장화 책동과 호주 핵잠수함 보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
- "《핵심광물발기틀거리》 창설도 세계공급망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려는 미국 행정부의 대외전략에 따른 것으로, 배타적·대결적 성격 내포"

o "쿼드가 우리 국가를 비롯한 지역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고취한 데 대해 단호히 규탄배격, 진영대결 기도를 추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

-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 "국가 간 신뢰와 협력,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합류해나갈 것"

당 결정 관철을 위한 채취·전력 부문 독려

1 개 요

o 북한은 제9차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2.8비날론연합기업소 및 보천내곡발전소 관련 사업 추진 성과 선전(5.29. 노동)

o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진행 중인 풍남광산* 개발공사 독려

* 함남 고원군에 위치한 광산으로 비날론의 주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하여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 공급

- 석회석의 안정적인 공급 위한 "파쇄·사별(선별)공정" 건설 완료, 시운전 진행 및 원활한 원료 수송 등을 위한 "철길늘이기" 공사 추진 중
- 또한, 풍남광산개발 종업원 살림집 건설 상황도 진척

o 양강도 보천내곡발전소 건설 위한 도당위원회 내 일군 협의회 조직

- 설비 보장, 합리적인 인력배치, 물길굴 공사 최단기간 결속 등 건설 관련 문제 토의 실시 및 작업속도 증진·수직갱 확장·피복콘크리트 공정 진행 실적 등 선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29. 노동)

o "2.8비날론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풍남광산 개발공사를 다그쳐"

- "품위높은 석회석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어있는 지구에 파쇄, 사별공정을 비롯한 광석처리계통을 건설해놓은 연합기업소 노동계급", "철길늘이기 등의 공사를 완강히 내밀고 있어"
- "1계열 파쇄, 사별공정에 대한 시운전을 진행",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탐구 도입하며 2계열 공사를 힘있게 추진"
- "풍남광산개발에서 또 하나의 투쟁전구로 되고있는 종업원들의 살림집 건설도 활기있게 진척"

o "양강도에서 보천내곡발전소 건설이 빠른 속도로 다그쳐져"

- "5월 초 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소건설을 최단기간 내에 끝내기 위한 일꾼들의 협의회를 조직",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 노력조직을 합리적으로, 물길굴 공사를 빠른 시일 안에 결속하는 문제들이 토의"
-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이며 종전에 비해 작업속도를 훨씬 높여", "수직갱확장 및 피복콘크리트치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5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1 개 요

o 북한은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가 5월 인민경제계획을 5.28.까지 조기에 완수하였다"고 선전(5.30. 노동)

- 당 중앙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일념으로 분발하여 월별 계획을 조기에 완수하였다며 그 의의를 부각하고 타 부문에 선전

* 김정은 위원장, 제9차 당대회 이후 경제분야 첫 현지지도로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를 방문(3.1.)

o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의 계획 달성 보도를 앞세우며 타 부문에 모범 사례로서 선전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

*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4월 계획 완수 보도(5.1.) △2월 계획 완수 보도(3.1.) △1월 계획 조기 완수(1.30.)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30. 노동)

o "또다시 기적적증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든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28일까지 5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

- "계통별설비들의 가동률과 세멘트의 질량적장성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개"

o (소성직장) "소송로동체와 가소로, 랭각기 등 전반공정설비들의 보수를 위한 각종 공무가공품들을 확보, 계획보다 보수기일을 훨씬 단축"

o (조합원료직장) "주감속기, 배풍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

o (세멘트직장, 분탄직장) "합리적인 조작방법으로 시간당분쇄능력을 종전보다 장성", "공정안정화와 설비들의 능력제고를 담보"

o (상원석광산) "침입식착암기와 파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벨트콘베아의 굴개교체작업을 책임적으로 하여 지난 7일 한교대에서만도 8,500여 t의 광물을 생산하는 기적 창조"

o (삼청광산) "암질능력에 맞는 능률적인 발파방법을 적극활용", "월계획을 기한전에 완수"

故 마체고라 전 주북 러시아 대사 기념판 제막식 진행

1 개 요

o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서 5.30. 故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전 주북 러시아 대사 기념판 제막식을 진행(5.31. 노동·중통)

* 참석 : 조용원(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선희(외무상), 울라디미르 토페하(러시아 임시 대리대사), 故 마체고라 전 대사 유가족 등

** 식순 : 토페하·최선희·故 마체고라 대사 자녀 발언 → 묵상 → 기념판 제막 및 러시아·북한 국가 주악 → 꽃 진정

o 토페하 대사·최선희 외무상, 북러 관계 발전에 기여한 마체고라 대사의 헌신 부각

- 故 마체고라 자녀, 기념판 제막식을 마련한 러시아·북한에 사의를 표함.

* 최선희 외무상, "북·러가 모든 전략적 문제에 공통된 입장을 공유하며 동맹관계 수준"이라고 언급(5.31. TASS)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31. 노동·중통)

o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전 주북 러시아 특명전권대사의 기념판 제막식이 30일 러시아 대사관에서 진행"

- "기념판 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기립"

o "토페하 러 임시대리대사, 마체고라 대사가 북러 친선관계 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한 데 대하여 언급, 그의 한 생은 조국을 위한 헌신적 복무의 귀감"

o "최선희 외무상, 마체고라 대사가 북러 친선의 강화발전에 쌓은 공적은 두 나라 인민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언"

o "마체고라 대사 자녀, 기념판 제막식을 위해 성심을 기울인 북러에 사의"

o "조용원 제1부위원장, 제막식 후 유가족 위로, 선친의 뜻을 이어 북러관계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확신 표명"

북한 국가정보국대표단,
러시아 제1차 국제안전연단 참가

1 개 요

o 국가정보국대표단(단장: 리창대 국가정보국장)은 5.28. 러시아에서 진행된 제1차 국제안전연단에 참가(5.31. 노동·중통)

* 참가 : 러시아 안전이사회·대외정보국·외무성, 150여 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

- 대표단, 제1차 국제안보포럼 內 제14차 국제안보담당 고위대표 회의* 참가

* 주제 : '다극세계가 형성되는 환경 속에서 국제안전에 대한 도전과 위협'

o 리창대 국장 연설, "전지구적 안보위기 속 자위력 강화 강조, 러시아 주권 수호지지"

* 리창대 국장, '25년 제13차 국제안보담당 고위대표 회의에 국가보위상 자격으로 참가 및 연설

o 리창대 국장, 쇼이구 러시아 안전이사회 서기장과 담화, 양국 안전·정보기관 간 협조 및 세계·지역 안보도전 대처 문제 토의

2 북한매체 주요 내용(5.31. 노동·중통)

o "북한 국가정보국대표단, 28일 러시아에서 진행된 제1차 국제안전연단 기본 일정인 제14차 안전문제담당 고위대표들의 국제상봉에 참가"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화상 축하연설 및 국제 및 지역안보 분야에서의 주요 도전과 위협들에 대한 동영상 방영"

o "리창대 국장, 연설 통해 모든 국가들이 자체의 방위력을 키우고 다극세계 건설에서 연대·협력하며, 국제정치에서의 특수화·이중기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

- "북한이 최강의 힘을 비축, 강화하는 것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임."
- "주권적 권리, 안전이익 수호를 위한 러시아 군대를 전적으로 지지"

o "리창대 국장, 쇼이구 러시아연방 안전이사회 서기장과 담화"

- "양국 안전·정보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양국의 핵심이익을 수호하고 세계·지역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문제들 토의"

주요인물 동정

김정은(총비서)

5.1.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 강습에 발언(5.2. 노동·중통)
5.2.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 격려 및 기념촬영(5.3. 노동·중통)
5.7. 구축함《최현》호 방문 및 함의 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 참관(5.8. 노동·중통)
5.7. 중요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5.8. 노동·중통)
5.9. 러시아 전승절 관련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 전송(5.9. 노동·중통)
5.11. 여러 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5.13. 노동·중통)
5.12. 100번째 생일을 맞는 김주현 할머니(평양시 선교구역 장충2동 17인민반)에게 '생일상' 전달(5.12. 중통)
5.14.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와 기념사진 촬영(5.15. 노동·중통)
5.17. 전군의 사·여단 지휘관 회합 소집(5.18. 노동·중통)
미상 100번째 생일을 맞는 김승주 할머니(신의주시 백사동 5인민반)에게 '생일상' 전달(5.21. 노동·중통)
5.24. 산시성 탄광가스폭발 관련 시진핑 주석에 위문전문(5.25. 노동·중통)
5.26. 미사일총국·국방과학원의 중요무기시험 참관(5.27. 중통)

길봉찬(황해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4.30. 해주시 태양광발전소 준공식 참석(5.1. 노동·중통)
미상 해주탄산칼슘생산소 현지시찰(5.2. 노동·중통)

김강일(국방성 부상 겸 장비총국장)

5.11. 김정은 위원장, 여러 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시 동행(5.13. 노동·중통)

김덕훈(내각 제1부총리)

5.1. 5.1절 기념 현지 방문 축하(5.2. 노동·중통)
5.11.~12.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진행 참가(5.13. 노동·중통)

김두일(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5.3. 경성소년단야영소에서 첫기 야영시작모임 참가(5.4. 노동·중통)
미상 함경북도에서 지방공업제품전시회 진행 참가(5.13. 노동·중통)

김명선(국방성 병기심사국장)

5.11. 김정은 위원장, 여러 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시 동행(5.13. 노동·중통)

김선명(화학공업상)

5.1. 5.1절 136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참석(5.2. 노동·중통)

김선일(도시경영상)

5.13. 미학토론회 진행 참가(5.14. 노동·중통)

김성(유엔 주재 상임대표)

5.6. 「제11차 NPT 평가회의」 비난 담화(5.7. 중통)

김성기(군 총정치국장)

4.28.~30.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석(5.1. 노동·중통)

4.30.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기념 청년야회 및 횃불행진 참석(5.1. 노동·중통)

5.1.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기념 종합공연 참석(5.2. 노동·중통)

5.2. 김정은 위원장,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 격려 및 기념촬영 시 동행(5.3. 노동·중통)

김성남(당 국제부장 겸 비서)

5.1. 5.1절 기념 현지 방문 축하(5.2. 노동·중통)

5.13. 베트남 또 럼 총비서 특사(외무상 레 호아이 쭝) 담화 참석(5.14. 노동·중통)

김성빈(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5.7. 제39차 전국과학기술축전 폐막식 참가(5.8. 노동·중통)

김성철(당 중앙위원회 부장)

5.14. 향산호텔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5.15. 노동·중통)

김수길(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5.1. 5.1절 136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참석(5.2. 노동·중통)

미상 《농촌건설평양시마감건재전시회-2026》 참가(5.6. 노동·중통)

5.25. 평양시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이어달리기 출발모임 진행(5.26. 노동·중통)

김승두(당 부장 겸 비서)

5.1. 5.1절 기념 현지 방문 축하(5.2. 노동·중통)

5.7. 제39차 전국과학기술축전 폐막식 참가(5.8. 노동·중통)

김여정(당 총무부장)

5.17. 김정은 위원장, 전군의 사·여단 지휘관 회합 소집시 동행(5.18. 노동·중통)

김용환(국방과학원 원장)

5.7. 김정은 위원장, 구축함 《최현》호 방문 및 함의 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 참관 시 동행(5.8. 노동·중통)

5.7. 김정은 위원장, 중요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 시 동행(5.8. 노동·중통)

5.11. 김정은 위원장, 여러 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시 동행(5.13. 노동·중통)

5.26.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국방과학원의 중요무기 시험 참관시 동행(5.27. 중통)

김유일(전력공업상)

5.1. 5.1절 136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참석(5.2. 노동·중통)

김재룡(당 조직지도부장 겸 비서)

4.28.~30.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석(5.1. 노동·중통)

4.30.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기념 청년야회 및 횃불행진 참석(5.1. 노동·중통)

5.2. 김정은 위원장,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 격려 및 기념 촬영 시 동행(5.3. 노동·중통)

5.11.~12.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진행 참가(5.13. 노동·중통)

김정관(당 부장 겸 비서)

5.1. 5.1절 기념 현지 방문 축하(5.2. 노동·중통)

5.18. 단천발전소 준공식 참석(5.20. 노동·중통)

김정식(당 중앙군사위원 겸 당 제1부부장)

5.7. 김정은 위원장, 구축함 《최현》호 방문 및 함의 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 참관 시 동행(5.8. 노동·중통)

5.7. 김정은 위원장, 중요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 시 동행(5.8. 노동·중통)

5.11. 김정은 위원장, 여러 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시 동행(5.13. 노동·중통)

5.26.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국방과학원의 중요무기 시험 참관시 동행(5.27. 중통)

김창석(내각 부총리)

4.30. 4.15 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폐막식 참가(5.1. 노동·중통)

김철해(스웨덴 주재 대사)

5.22. 스웨덴 국왕에 신임장 봉정(5.26. 노동·중통)

김하규(철도상)

5.1. 5.1절 136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참석(5.2. 노동·중통)

김형식(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5.28. 레바빙 주북 베트남대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작별방문(5.29. 중통)

리경철(평안남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

5.10.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농장에서 벼모내기 시작 참여(5.11. 중통)

리광남(기계공업상)

5.18. 단천발전소 준공식 참석(5.20. 노동·중통)

리길성(싱가포르 주재 대사)

5.26. 싱가포르 외무상 평양 도착 맞이(5.27. 노동·중통)

5.26. 북싱 외교장관회담 시 참석(5.27. 노동·중통)

5.27. 조용원 상임위원장-싱가포르 외무상 담화 시 참석(5.28. 노동·중통)

5.27. 싱가포르 외무상 평양 출발 전송(5.28. 노동·중통)

리성범(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5.11. 러시아 아무르주 방문 평안남도 친선대표단 출발(5.12. 노동·중통)

5.20. 러시아연방 아무르즈를 방문하였던 평안남도친선대표단 귀국(5.21. 노동·중통)

리영길(조선인민군 총참모장)

5.17. 김정은 위원장, 전군의 사·여단 지휘관 회합 소집시 동행(5.18. 노동·중통)

리영철(석탄공업상)

5.1. 5.1절 136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참석(5.2. 노동·중통)

리원종(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5.11.~12.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진행 참가(5.13. 노동·중통)

미상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기념 직총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와 직맹초급선전일군들의 공연 관람(5.15. 노동·중통)

리일환(당 부장 겸 비서)

4.28.~30.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석(5.1. 노동·중통)

4.30.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기념 청년야회 및 횃불행진 참석(5.1. 노동·중통)

5.1. 5.1절 136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참석(5.2. 노동·중통)

5.2. 김정은 위원장,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 격려 및 기념 촬영 시 동행(5.3. 노동·중통)

5.11.~12.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진행 참가(5.13. 노동·중통)

리창대(국가정보국장)

5.28. 러시아 제1차 국제안보포럼 참가(5.31. 노동·중통)

리철만(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5.3. 모내기와 밭작물 비배관리기술전습회 참가(5.4. 중통)

리히용(당 부장 겸 비서)

5.1. 5.1절 기념 현지 방문 축하(5.2. 노동·중통)

문성혁(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5.13. 베트남 또 럼 총비서 특사(외무상 레 호아이 쭝) 담화 참석(5.14. 노동·중통)

문철(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4.28.~30.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석(5.1. 노동·중통)

박광섭(해군사령관)

5.7. 김정은 위원장, 구축함 《최현》호 방문 및 함의 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 참관시 동행(5.8. 노동·중통)

박구호(조선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

5.23.~24.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제26차 전체대회 진행(5.26. 노동·중통)

박명호(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미상 함경북도에서 지방공업제품전시회 진행 참가(5.13. 노동·중통)

박상길(외무성 아시아 2부상)

5.12. 베트남 또 럼 총비서 특사(외무상 레 호아이 쭝) 일행 맞이(5.13. 노동·중통)
5.13. 베트남 또 럼 총비서 특사(외무상 레 호아이 쭝) 담화 참석(5.14. 노동·중통)
5.14. 당 제9차대회와 베트남공산당 제14차대회 축하하는 행사 진행 참가(5.15. 노동·중통)
5.15. 베트남 총비서 특사(외무상 레 호아이 쭝) 담화(5.16. 노동·중통)
5.16. 베트남 또 럼 총비서 특사(외무상 레 호아이 쭝) 일행 전송(5.17. 노동·중통)
5.26. 싱가포르 외무상 평양 도착 맞이(5.27. 노동·중통)
5.26. 북싱 외교장관회담 시 참석(5.27. 노동·중통)
5.27. 조용원 상임위원장-싱가포르 외무상 담화 시 참석(5.28. 노동·중통)
5.27. 싱가포르 외무상 평양 출발 전송(5.28. 노동·중통)

박정천(국방성 고문)

5.11. 김정은 위원장, 여러 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시 동행(5.13. 노동·중통)
5.17. 김정은 위원장, 전군의 사·여단 지휘관 회합 소집시 동행(5.18. 노동·중통)

박태성(내각 총리)

5.1. 5.1절 136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참석(5.2. 노동·중통)
미상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5.16. 노동·중통)
5.18. 단천발전소 준공식 참석(5.20. 노동·중통)
5.19. '루멘 라데프' 신임 불가리아 수상에 축전 발송(5.19. 중통)

박훈(내각 부총리)

5.12. 제23차 5.21건축축전 개막식 참가(5.13. 노동·중통)
5.15. 제23차 5.21건축축전 폐막식 참가(5.16. 노동·중통)

백은철(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4.28.~30.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석 및 중앙위원회 위원장 선출(5.1. 노동·중통)
5.1.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기념 종합공연 참석(5.2. 노동·중통)
5.5. 《소년신문》창간 80돐 기념보고회 참가(5.6. 노동·중통)
5.13. 제61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폐막식 참가(5.14. 노동·중통)

송세일(브라질 주재 대사)

5.6. 브라질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5.10. 노동·중통)

신광선(인민대학습당 총장)

5.22. 북 인민대학습당-러 국립도서관 양해각서 체결(5.27. 주북 러 대사관 텔레그램)

신홍철(러시아 주재 대사)

5.9. 조선인민군 육해공군혼성종대 모스크바승리열병식 참가(5.10. 노동·중통)

심동국(에티오피아 주재 대사)

4.27. 에티오피아 대통령에 작별방문(5.1. 노동·중통)

심영학(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5.12. 제23차 5.21건축축전 개막식 참가(5.13. 노동·중통)

5.15. 제23차 5.21건축축전 폐막식 참가(5.16. 노동·중통)

안금철(당 부장 겸 비서)

5.1. 5.1절 136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참석(5.2. 노동·중통)

안명준(황해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5.20. 러시아를 방문하는 황해남도대표단 출발(5.21. 노동·중통)

5.20. 북 황남대표단-러 오룔주 간 협력협정 체결(5.29. 주북 러 대사관 텔레그램)

5.29. 러시아 방문하였던 황해남도대표단 귀국(5.30. 노동·중통)

양명철(평안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5.18. 단천발전소 준공식 참석(5.20. 노동·중통)

유창선(총참모부 포병국장)

5.11. 김정은 위원장, 여러 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시 동행(5.13. 노동·중통)

윤정호(대외경제상)

5.4. 제24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 참가(5.5. 노동·중통)

5.29. 벨라루스와 러시아에 가는 북한 정부경제대표단 출발(5.30. 노동·중통)

장창하(미사일총국장)

5.26.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국방과학원의 중요무기 시험 참관시 동행(5.27. 중통)

전승국(내각 부총리)

5.18. 단천발전소 준공식 참석(5.20. 노동·중통)

정경택(당 부장 겸 비서)

5.1. 5.1절 136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참석(5.2. 노동·중통)

5.17. 김정은 위원장, 전군의 사·여단 지휘관 회합 소집시 동행(5.18. 노동·중통)

조용원(최고인민회의 상암위원회 위원장)

5.1. 5.1절 기념 현지 방문 축하(5.2. 노동·중통)

5.15. 베트남 총비서 특사(외무상 레 호아이 쭝) 담화(5.16. 노동·중통)

5.27. 싱가포르 외무상과 담화(5.28. 노동·중통)

5.30. 주북 러대사관 故 마체고라 전 대사 기념판 제막식 진행(5.31. 중통)

조춘룡(당 부장 겸 비서)

5.7. 김정은 위원장, 구축함 《최현》호 방문 및 함의 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 참관 시 동행(5.8. 노동·중통)

5.7. 김정은 위원장, 중요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 시 동행(5.8. 노동·중통)

5.11. 김정은 위원장, 여러 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시 동행(5.13. 노동·중통)

5.26.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국방과학원의 중요무기 시험 참관시 동행(5.27. 중통)

주창일(당 부장 겸 비서)

4.28.~30.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석(5.1. 노동·중통)

4.30.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기념 청년야회 및 횃불행진 참석(5.1. 노동·중통)

5.1.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 강습에 김정은 위원장 발언 전달(5.2. 노동·중통)

5.2. 김정은 위원장,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 격려 및 기념 촬영 시 동행(5.3. 노동·중통)

5.5. 《소년신문》창간 80돐 기념보고회 참가(5.6. 노동·중통)

5.8.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 맞이(5.9. 노동·중통)

5.11.~12.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진행 참가(5.13. 노동·중통)

5.12.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 진행(5.13. 노동·중통)

최선희(외무상)

5.3. 폴란드 외무상에게 축전 전송(5.5. 중통)

5.13. 베트남 또 럼 총비서 특사(외무상 레 호아이 쭝) 담화 참석(5.14. 노동·중통)

5.26. 싱가포르 외무상(비비안 발라크리쉬난)과 회담(5.27. 노동·중통)

5.28. 아제르바이잔 외무상에게 축전 발송(5.29. 중통)

5.30. 주북 러대사관 故 마체고라 전 대사 기념판 제막식 진행(5.31. 중통)

한광호(당 부부장)

5.1.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 강습 참석(5.2. 노동·중통)

한영호(임업상)

5.1. 5.1절 136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참석(5.2. 노동·중통)

허종만(조선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5.23.~24.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제26차 전체대회 진행 및 의장 재선출(5.26. 노동·중통)

현송월(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5.17. 김정은 위원장, 전군의 사·여단 지휘관 회합 소집시 동행(5.18. 노동·중통)

월간 보도일지

5.1.(금)

대내
- o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진행(노동·중통)
- o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진행 관련 △참가자들과 청년들에게 축하문 게재 △청소년학생들의 야회 및 홰불행진 진행(노동·중통)
- o 해주시에 태양빛발전소 신축, 준공식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5.2.(토)

대내
- o 5.1절 136주년 관련 중앙보고회 개최 등(노동·중통)
- o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관련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 진행 △청년중앙예술선전대와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5.3.(일)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노동·중통)
- o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참가자들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지원(노동·중통)
- o 장애자직업기술학교 졸업식 및 개학식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외무성 대변인, 북한 사이버활동 관련 기자 문답(중통)

5.4.(월)

대내
- o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위한 개척정신 강조 사설(노동)
- o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참가자들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참관(노동·중통)

대남

대외

5.5.(화)

대내
- o 9기 과업 첫 경제 실적 선전(노동)
- o 전국농업부문 일군들을 위한 모내기와 밭작물비배관리 기술전습회 진행(노동)
- o 제24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노동·중통)

대남

대외

5.6.(수)

대내
- o 농촌 관개체계 정비, "당 정책의 생활력 과시 정치투쟁"(노동)
- o 주민들에게 '애국'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며 분발을 촉구(노동)
- o《소년신문》 창간 80년 기념보고회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5.7.(목)

대내
- o 제9차 당대회 관철을 위한 3대 혁명 강조(노동)
- o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개관 후 10일간 23만 2천여명 참관(노동·중통)
- o 2026년 봄철 국토환경보호부문 미학토론회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김성 유엔 대사, 제11차 NPT(핵확산방지조약) 평가회의 관련 담화(중통)
- o 러시아 기상수문 및 환경감시국대표단 평양 도착(노동·중통)

5.8.(금)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최현호 기동능력 종합평가 시험 참관(노동·중통)
- o 김정은 위원장, 중요군수공업기업소 현지지도(노동·중통)
- o 농업과학원,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 알곡고지점령에 선차적 요구"(중통)

대남

대외

5.9.(토)

대내
- o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제8차대회 소집 공고(노동·중통)
- o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 평양 도착 및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전승절 관련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 발송(노동·중통)

5.10.(일)

대내
- o 각지 모내기 시작 및 모내기에 총집중 주문(노동)
- o 국가관광총국에서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적극화(중통)
- o 각지에 파견된 인민군인들 종합봉사소 골조공사 추진(중통)

대남

대외
- o 인민군 육해공군 혼성종대 러시아 전승절 관련 모스크바 열병식에 참가(노동·중통)

5.11.(월)

대내
- o 제9차 당대회 관련 알곡증산성과 강조(노동·중통)
- o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 정치문화사업 진행(노동·중통)
- o 교육성 중앙교육정보중심에서 교육의 수자화, 지능화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중통)

대남

대외

5.12.(화)

대내
- o 봄철 영농사업 지원 독려(노동·중통)
- o 제9차 당대회 결정관철 경제부문 투쟁 강조(노동)

대남

대외
- o 러시아 아무르주 방문 평안남도 친선대표단 출발(노동·중통)

5.13.(수)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여러 군수공업 기업소들 현지지도(노동·중통·중방)
- o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대회 진행 및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베트남 또 럼 총비서 특사(외무상 레 호아이 쭝) 평양 도착(노동·중통)

5.14.(목)

대내
- o “사회주의경쟁” 강조 및 도당위원회 활동 동향 선전(노동)
- o 교육분야 혁신 성과 선전(노동)

대남

대외
- o 외무상(최선희), 베트남 또 럼 총비서 특사(외무상 레 호아이 쭝) 회담(노동·중통)
- o 국제부장(김성남), 베트남 또 럼 총비서 특사(외무상 레 호아이 쭝) 면담(노동·중통)

5.15.(금)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 대회 참석자와 기념사진(노동·중통)
- o 8기의 농촌, 광산 지역의 주택 건설 성과 선전(노동·중통)
- o 청년동맹 중앙위 11기 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노동)

대남

대외
- o 북한 제9차 당대회와 베트남 제14차 당대회 축하 행사 진행(노동·중통)
- o 베트남 총비서 특사 일행 평양 여러곳 참관(노동·중통)
- o 17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 경기 결승 진출(노동)

5.16.(토)

대내
- o 제9차 당대회 결정 관철 관련 박태성 내각총리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노동·중통)
- o 시·군 고려약공장들에서 약품의 가지수 확대(중통)

대남	
대외	o 조용원(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베트남 또 럼 총비서 특사(외무상 레 호아이 쭝) 면담(노동·중통) o 2026년 아시아 역기 선수권대회에서 7개의 금메달 획득, 세계 및 아시아 신기록 수립(노동·중통)
5.17.(일)	
대내	o 황해남도 안악군 등에서 벼모내기 본격적으로 추진(노동·중통) o 각지 농촌들에서 밀, 보리의 생육 후반기 비배관리 과학기술적으로 진행(중통)
대남	
대외	
5.18.(월)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전군의 사·여단 지휘환회합 소집(노동·중통) o 중앙의 예술단체, 예술선전대들에서 포전경제선동 전개(중통) o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에 가물(가뭄) 경보(중통)
대남	
대외	o 2026년 아시아축구연맹 17살 미만 여자 아시아컵 경기대회 우승(노동·중통)
5.19.(화)	
대내	o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에서 매일 남새(채소) 수확, 공급 선전(노동) o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 강조(노동) o 정연한 사업체계, 일하는 기풍 확립 강조(노동)
대남	
대외	o 박태성 내각총리, '루멘 라데프' 신임 불가리아 수상에 축전(중통)
5.20.(수)	
대내	o 단천발전소 1단계 준공식 진행(노동) o 평양시 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이 사상사업 전개(중통)
대남	
대외	o 2026 AFC U-17 여자아시안컵경기 우승한 축구 선수들 귀국(노동)
5.21.(목)	
대내	o 주요 분야의 9기 과업 관철 성과 선전 및 독려(노동) o 지방발전 정책으로 변화된 지역의 "새 생활, 새 풍경" 선전(노동) o 조선소년단 창립 80년 관련 충성의 편지이어달리기 출발모임(노동)
대남	o 내고향여자축구단과 수원FC위민 사이 경기 승리 결과 보도(노동·중통)
대외	o 미국의 '다목적 헬기 등 대남 무기판매' 비난 논평(중통) o 북러 지자체 간 교류 △황해남도대표단 방러 출발 △아무르주 방문 평안남도친선대표단

귀국(노동·중통)

5.22.(금)

대내
- o 제9차 당대회 과업 관철 위한 기세 강조 사설(노동)
- o 황해남도 지역별 모내기 성과 선전(노동)
- o 국립연극단창립 80년 기념보고회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5.23.(토)

대내
- o 당 육아정책 선전 △평안북도에서 새 염소목장, 분장건설 추진 △청진시 송평구역에서 젖제품(유제품) 생산실 개선 △함흥시 청년염소목장 사양관리 과학화(노동)
- o 남포학생소년궁전 체육관 신축(노동)
- o 각지 농촌들에서 강냉이밭 김매기 추진(중통)

대남

대외
- o 2026년 아시아 역기 선수권 대회 참가 선수들 귀국(노동·중통)

5.24.(일)

대내
- o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모내기 속도 1.5배 선전(노동)
- o 각지에서 수천 정보의 원료림 새로 조성(중통)

대남
- o

대외
- o 내고향여자축구단의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우승 보도(노동·중통)

5.25.(월)

대내
- o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소집 결정서(노동·중통)
- o 숙천군, 문덕군, 평원군에서 모내기실적 60%이상 달성 선전(노동)

대남

대외
- o 김정은 위원장, 산시성 탄광가스폭발 관련 시진핑 주석에 위문전문(노동·중통)

5.26.(화)

대내
- o 평양시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이어달리기 출발모임 진행(노동·중통)
- o 평양시 안의 농촌들에서 모내기 성과 확대(중통)

대남

대외
- o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6차 전체대회 진행(노동·중통)
- o 김철해 주스웨덴 북한 대사, 스웨덴 국왕에 신임장 봉정(노동·중통)

5.27.(수)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국방과학원의 중요 무기 시험 참관(중통)
- o 평양목재공장창립 70년 기념보고회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싱가포르 외무상, 평양 도착 및 최선희(외무상)와 회담(노동·중통)
- o '내고향축구단' 귀국 보도(노동·중통)

5.28.(목)

대내
- o 당 결정의 무조건적 집행 규율 확립 강조 사설(노동)
- o 전국 태권도학교 경기와 바둑, 조선장기급별 경기 진행(중통)

대남

대외
- o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관련 외무성 대변인 기자 문답(중통)
- o 싱가포르 외무상, 조용원(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 및 평양 출발(노동·중통)

5.29.(금)

대내
- o 새시대 5대 당건설강령 중심과업으로 '정치건설' 선전(노동)
- o 사회주의농촌건설 관련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선전(노동)

대남

대외
- o 레바빙(주북 베트남대사), 김형식(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작별 방문(중통)

5.30.(토)

대내
- o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5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선전(노동)
- o 평양시에서 선전선동활동 전개(중통)

대남

대외
- o 벨라루스와 러시아에 가는 북한 정부경제대표단 평양 출발(노동·중통)
- o 러시아를 방문한 황해남도대표단 귀국(노동·중통)

5.31.(일)

대내
- o 당 결정 관철 각지 농촌의 모내기 성과 확대 강조 등(노동)
- o 평양시에서 농촌살림집건설 추진(중통)

대남

대외
- o 주북 러시아 대사관 전 대사 故 마체고라 기념판 제막식 진행(노동·중통)
- o 재일조선학생소년대표단 평양 도착(노동·중통)
- o 국가정보국대표단 러시아에서 진행된 제1차 국제안전연단에 참가(노동·중통)

이달의 약사

- **05.01.** 근로자의 날(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 파업 기념)
- **05.03.** 「조국통일 3대원칙」 제의일(1972년 5월 3일, 김일성 제의)
- **05.05.** 「조국광복회」 결성일(1936년 5월 5일, 김일성 조직)
- **05.06.** 제7차 노동당 대회 개최(2016년 5월 6일 ~ 9일)
- **05.07.** 「남북 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1992년)
- **05.09.** 김정은 「당 위원장」 추대일(2016년)
- **05.10.**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1948년)
- **05.11.** 철도절(1953년 3월 18일 제정)
- **05.13.**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결성일(1961년 5월 13일 결성)
- **05.14.** '화성-12형' 발사(2017년)
- **05.15.** 지질 탐사절(1970년 2월 3일 제정)
- **05.16.** 남북 차관급 회담 개최(2005년 5월 16일 ~ 19일, 개성)
- **05.17.** 남북 철도 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2007년)
- **05.18.** 「5.18 광주 민주화운동」(북한측 명칭: 광주 인민봉기) 기념일(1980년)
- **05.20.** 「조선 학생위원회」 결성일(1960년)
- **05.21.** 건설자절(1971년 4월 30일, 제정)
- **05.21.** 북한, '북극성-2형' 발사(2017년)
- **05.23.**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일(1939년)
- **05.24.** 「조국통일 5개 방침」 제시일(1990년)
- **05.24.**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설치(1994년)
- **05.24.** 5.24 조치 발표(2010년)
- **05.24.**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2018년)
- **05.25.**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결성일(1955년)
- **05.25.**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제정(2007년)
- **05.25.** 북한, 제2차 핵실험 실시(2009년)
- **05.26.**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 **05.28.** 「남북 해운합의서」 채택(2004년)
- **05.29.** 평양 교예단 서울 공연(2000년 5월 29일 ~ 6월 11일)

- **05.29.**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2007년 5월 29일 ~ 6월 1일, 서울)
- **05.30.** 「조선 종교인협의회」 결성일(1989년)
- **05.31.**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 사업 공식 종결 선포(2006년)